

CONTENTS

I. 포럼 개요

1. 개최목적
2. 개 요
3. 조 직
4. 주요행사 및 회의
5. 참가자 메시지
6. 총 평
7. 언론보도

II. 세션별 주요 논의 내용

III. 포럼 후속조치계획

별첨

1. 행사일정표
2. 참가자 명단



1. 개최목적

세계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아시아의 성장 잠재력은 돋보였습니다. 이제 세계경제는 아시아를 떼어놓고 설명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세계인구의 절반 이상이 아시아에서 살고 있습니다. 전세계 외환보유고의 절반 이상이 아시아에 몰려 있습니다. 새롭게 출범한 G20 체제에 한국, 중국, 일본, 인도, 인도네시아 등 5 개의 아시아 국가가 참여하여 아시아의 영향력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동아시아 지역은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지역으로 세계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공동체 의식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동아시아 지역협력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중·일 정상회담도 제도화되었습니다. 이곳 제주에서도 한·중·일 정상회담을 비롯하여 다양한 형태의 지역협력에 관한 국제회의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지역 내의 갈등을 극복하고 화해와 협력의 장을 열어가고 있으며 공동체 의식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2011 년 개최된 제 6 회 제주포럼은 “새로운 아시아: 평화와 번영을 위하여”를 주제로 채택하였습니다. 중국의 부상과 한반도 통일이 가져올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평가해 보고 아시아 기업가 정신에 바탕을 둔 새로운 성장의 가능성에 주목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한·중 협력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새로운 스탠더드의 내용과 전망을 검토하고 신성장동력과 창조산업, 차세대 지도자와 교육의 미래, 여성의 역할 등에 대하여도 논의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상호 이해의 증진을 통해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모색하고자 하였습니다. 아시아에서의 문화퓨전은 지역공동체 의식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북핵문제 해결, 역사적 화해, 해양안보 문제 등 동아시아 지역의 평화문제를 폭넓게 다루어 보고자 하였습니다. 일본의 자연재해를 계기로 기후변화와 자연재해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는 장도 마련하였습니다.

제주는 세계가 인정하는 자연환경보전지역입니다. 환경보전과 도시디자인에 관한 프로그램도 준비했습니다. DMZ 의 생태보전과 두만강개발 등 국경지역의 평화적 이용과 개발협력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저개발국 개발지원과 질병퇴치 등 다양한 이슈들에 대한 국제협력의 가능성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습니다.

2. 개요

- 주제: “새로운 아시아: 평화와 번영을 위하여”
- 일시: 2011년 5월 27일(금) ~ 29일(일)
- 장소: 해비치 호텔 & 리조트, 제주
- 주최: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평화재단, 동아시아재단
- 주관: 제주평화연구원
- 후원: 외교통상부, 국토해양부, 대통령직속미래기획위원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국제교류재단, 동북아역사재단, 제주대학교, 서울과학종합대학원, 코리아DMZ협의회, 유엔거버넌스센터, 현대자동차, 오슬로국제평화연구소(PRIO),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한지질학회

3. 조직

조직위원회

(10명)

조직위원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조직위원(가나다순):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동아시아재단 이사장

서울과학종합대학원 총장

외교통상부 다자외교조정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제주대학교 총장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부지사

제주평화연구원장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장

집행위원회

(14명)

집행위원장:

제주평화연구원장

집행위원(가나다순):

국제평화재단 사무국장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동아시아재단 사무국장

미래기획위원회 외교안보국장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교수

외교통상부 국제안보과장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홍보팀 부장

제주대학교 학생처장

제주특별자치도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제주특별자치도 평화협력과장

제주평화연구원 기획조정실장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실장

한국국제교류재단 공공외교사업부장

I. 포럼 개요

4. 주요행사 및 회의

1) 행사 운영

행사명	역할	성함	소속 및 직함	문화공연
개회식(750 명)	개회사	우근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포럼 조직위원장	난타
	환영사	공로명	동아시아재단 이사장	
	기조연설	김황식	대한민국 국무총리	
	기조연설	자오지청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외사위원회 주임	
	기조연설	글로리아 아로요	전 필리핀 대통령	
외교통상부 장관 주최 특별오찬(50 명)	오찬사	박석환	외교통상부 제 1 차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주최 환영만찬(650 명)	만찬사	우근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포럼 조직위원장	제주도립 무용단 -부채춤 -북춤 -장구춤
	축사	문대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건배제의	장시엔원	중국 분마실업집단유한공사 회장	
	건배제의	콘스탄틴 브누코프	주한 러시아대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주최 폐회만찬(400명)	폐회사	한태규	제주평화연구원장/제주포럼 집행위원장	
	만찬사	변정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건배제의	토마스 코즐로프스키	주한 EU 대사	



2) 의제별 회의운영

의제	구분	세션 주제	참여기관	참석인원
평화와 안보 (15)	전체	[세계지도자세션] 새로운 아시아: 평화와 번영을 위하여	제주평화연구원	94
	전체	한반도 통일과 새로운 기회	미래기획위원회	92
	전체	[외교관라운드테이블] 한반도 통일과 새로운 기회	미래기획위원회	87
	전체	[기조연설] 한·중 협력	서울과학종합대학원	41
	동시	[외신기자라운드테이블] 2012년 아시아 태평양 지역 정치변동 예측	동아시아재단	33
	동시	동아시아 비핵화는 가능한가? 그 기회와 제약	동아시아재단	61
	동시	동아시아 해양안보	동아시아재단	50
	동시	두만강 개발계획과 동아시아 평화	동북아역사재단	54
	동시	북한의 권력계승과 개방개혁 전망	동아시아재단	42
	동시	역사화해와 동아시아 협력	동북아역사재단	22
	동시	유엔과 보호책임	유엔 거버넌스센터	46
	동시	제주국제자유도시와 세계평화의 섬 구현	제주특별자치도	50
	동시	제주프로세스와 동북아 다자안보체제 구축	동아시아재단	41
	동시	중국의 부상: 기회와 도전	동아시아재단	70
	동시	평화연구의 최근 이슈와 과제	PRIO/한국외국어대학교	30
환경 (8)	동시	DMZ 평화·생태적 이용·보존을 위한 국제협력	코리아 DMZ 협의회	18
	동시	거세어지는 기후변화와 강력해지는 재난, 대응책은 있는가	서울과학종합대학원	32
	동시	국제보호구역과 제주형 보전모델	제주특별자치도	45
	동시	그린에너지 응용기술과 신사업기회	서울과학종합대학원	42
	동시	세계자연유산과 지질환경보존	대한지질학회	52
	동시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 지진 및 쓰나미 위험	서울과학종합대학원	21
	동시	유엔글로벌컴팩트와 5W 프로젝트를 통한 새천년개발목표(MDGs)에 기여 I	유엔 글로벌컴팩트	18
	동시	유엔글로벌컴팩트와 5W 프로젝트를 통한 새천년개발목표(MDGs)에 기여 II	유엔 글로벌컴팩트	17
경제 및 경영 (22)	전체	G20 시대, 금융시장 체제 변화와 뉴아시아 전망	서울과학종합대학원	68
	전체	New Asia Standard	서울과학종합대학원	110
	동시	G20 과정의 금융규제개혁과 안전망	동아시아재단	19
	동시	G20 이후 국가와 도시경쟁력의 새로운 이슈	서울과학종합대학원	30
	동시	G20 이후 다국적 기업의 세계성공전략	서울과학종합대학원	49
	동시	G20 이후 도시경영의 새로운 도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41
	동시	Green Mega Trends in Business and World	서울과학종합대학원	20
	동시	경제발전에 따른 국력에 맞는 선진원조 동향	산업정책연구원	29
	전체	동양철학과 기업이 정신 그리고 지도자의 자선활동	서울과학종합대학원	28
	동시	비즈니스 신세력: 아시아 청년 리더	서울과학종합대학원	47
	동시	세계무역, 통화전쟁, 자유무역협정: 보호무역주의인가, 자유무역주의인가?	동아시아재단	21
	동시	아시아 자동차 산업의 미래: 디자인+신표준	서울과학종합대학원	45
	동시	아시아의 가치와 글로벌 리더십	서울과학종합대학원	41
	동시	장수기업	서울과학종합대학원	64
	동시	전자상거래의 WEB 3.0 전망, 온라인 게임	서울과학종합대학원	35
	동시	융합학문으로서의 경영학의 미래	서울과학종합대학원	18
	동시	제주의 미래비전	제주특별자치도	187
	동시	중국! 14억 시장으로 달려가자	서울과학종합대학원	37
	동시	중국 기업의 한국 상장 (上場)	서울과학종합대학원	15

I. 포럼 개요

주제	구분	세션 주제	참여기관	참석 인원
경제 및 경영	동시	산업보안 정책의 오늘과 내일	서울과학종합대학원	19
	동시	한국 기업의 중국 상장 (上場)	서울과학종합대학원	19
	동시	한국기업의 지속경영	산업정책연구원	42
경영 디자인 (6)	동시	[기조연설] 경영디자인	Business Management Forum	43
	동시	디자인경영의 교육에 대한 대학리더들의 토론	Business Management Forum	50
	동시	유럽·아메리카·아시아 경영의 흐름, 제주의 도시디자인	Business Management Forum	112
	동시	Collaboration	Business Management Forum	44
	동시	Mutual Learning	Business Management Forum	27
	동시	Convergent Education	Business Management Forum	26
교육 (2)	동시	동아시아 교육협력 네트워크 강화	한국국제교류재단	21
	동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미래와 고등교육의 역할	제주대학교	41
의료 (4)	동시	[의료관광 I] 국내외 의료관련정책 및 성공사례 발표 및 토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55
	동시	[의료관광 II] 제주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패널토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57
	동시	장수인의 비밀	서울과학종합대학원	54
	동시	저개발국 감염성질병퇴치를 위한 국제협력	서울과학종합대학원	19
문화(4)	동시	Creative Industry: 아시아의 美(영화, 언론, 패션)	서울과학종합대학원	56
	동시	소셜네트웍스 시대, 언론이 나아가야 할 방향	서울과학종합대학원	47
	동시	아시아 문화 퓨전과 공동체 건설	한국국제교류재단	28
	동시	한·중 예술 관광	서울과학종합대학원	15
브랜드(1)	동시	리딩 브랜드로의 도약: 국가/지역브랜드 현황과 미래	산업정책연구원	36
여성(2)	동시	여성, 창조성, 문화: She's Coming	서울과학종합대학원	121
	동시	지식 재산 시대, 여성의 중요성	한국여성발명협회	95

3) 참여기관별 특별행사 운영

-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주최 중국기업인 초청 만찬
 - ✧ 일시 및 장소: 5월 27일(금), 18:30-20:00, 다이아몬드 홀
 - ✧ 참석자: 변정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외 220여명
 - ✧ 문화공연: 제주민속예술단 숨비 & 울림

- ◆ 한국국제교류재단 주최 환영만찬
 - ✧ 일시 및 장소: 5월 27일(금), 18:30-20:00, 섬모라 PDR A
 - ✧ 참석자: 한영희 한국국제교류재단 교류이사 외 15명

- ◆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경제부지사 주최 환영만찬
 - ✧ 일시 및 장소: 5월 27일(금), 18:30-20:00, EFL 라운지
 - ✧ 참석자: 김부일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경제부지사 외 19명

- ◆ 제주대학교 총장 주최 오찬
 - ✧ 일시 및 장소: 5월 28일(토), 12:30-14:00, 섬모라 PDR B
 - ✧ 참석자: 허향진 제주대학교 총장 외 7명

◆ 동아시아재단 이사장 주최 **Global Asia Night**

- ✧ 일시 및 장소: 5월 28일(토), 20:20-22:00, 크리스탈 B
- ✧ 참석자: 공로명 동아시아재단 이사장 외 100여명

◆ 서울과학종합대학원 주최 “피아노가 있는 방” 공연

- ✧ 일시 및 장소: 5월 28일(토), 20:20-22:00, 크리스탈 C
- ✧ 참석자: 주요 중국참가자 등 50여명

◆ 한국여성발명협회 주최 간담회

- ✧ 일시 및 장소: 5월 28일(토), 20:20-22:00, 사파이어 홀
- ✧ 참석자: 한국여성발명협회 관계자 외 30명

◆ 자오지청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외사위원회 주임과의 간담회

- ✧ 일시 및 장소: 5월 29일(일), 09:00-10:00, 섬모라 PDR A
- ✧ 주제: 한국과 중국의 공공외교 현황과 미래
- ✧ 참석자: 유종하 대한적십자사 총재 외 8명

◆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주최 제주국제고문단 초청 오찬

- ✧ 일시 및 장소: 5월 29일(일), 12:30-14:00, EFL 라운지
- ✧ 참석자: 김상인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외 19명

◆ 관광프로그램 운영(5.28~29, 14:00-18:00, 영어/중국어)

가) 문화 관광 코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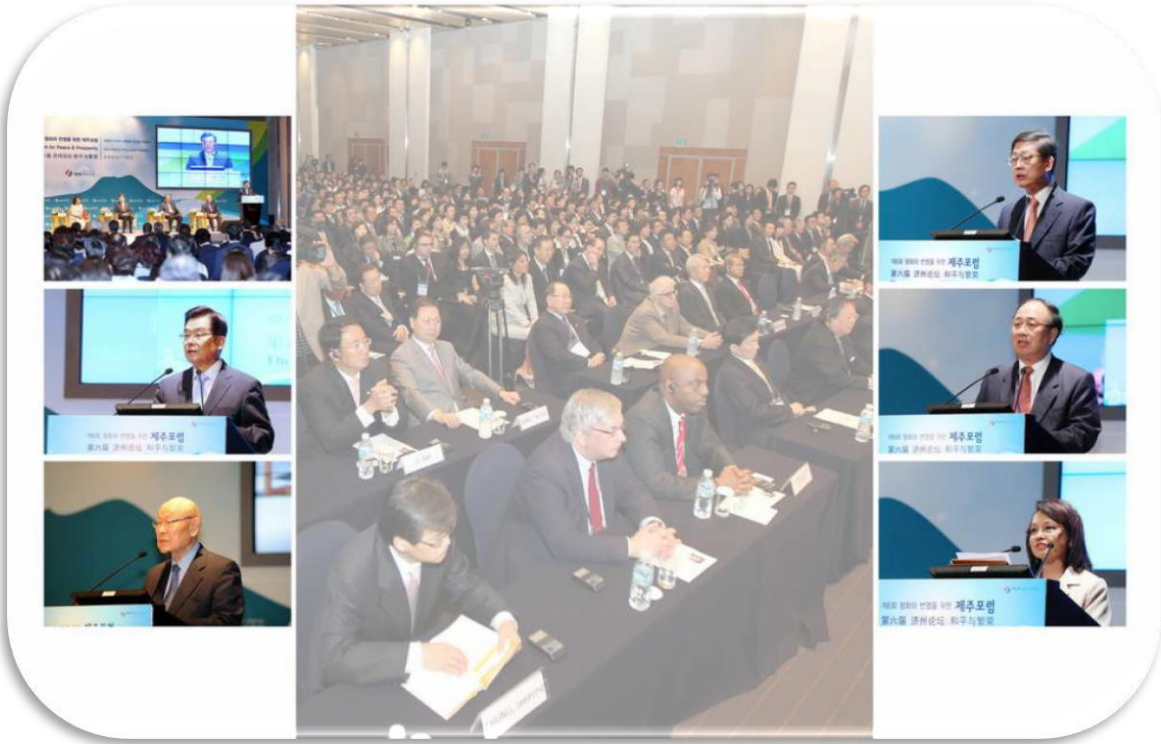
- ✧ 코스: 김영갑 갤러리 - 제주돌문화공원 - 민속공연(풍물패)
- ✧ 참석자: 10여명

나) 제주 세계자연유산 코스

- ✧ 코스: 성산일출봉 세계자연유산탐방 - 제주민속공연/해녀물질공연 - 올레 1코스 체험
- ✧ 참석자: 40여명



5. 참가자 메시지



개회식 기조연설에서 김황식 국무총리는 제주포럼이 평화와 번영 외에 기후와 환경 등의 다양한 주제를 다루는 종합포럼으로 발전하고 있는 데 대해 치하하며, 아시아의 부상과 발전의 길목에서 최근 조우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즉 북한의 핵개발 위기와 기후변화, 자연재해, 에너지, 테러, 사이버 공격 등의 비전통적 위협 및 동아시아의 높은 대외의존도 등을 극복하는 희망의 21세기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로요 전 필리핀 대통령은 기조연설에서 향후 아시아의 중심적 역할에 관한 기대와 전망을 설명하며 빈곤 퇴치, 중산층 확대, 천연자원의 효율적 개발 및 환경보호와 경제부흥이 가능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피력했습니다. 한편 동아시아의 전반적인 평화와 안정구축을 위해 한반도의 통일은 매우 중요하며, 통일 후 단기적 어려움이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시너지 효과가 클 것임을 예상했습니다. 또한 한국전 파병 및 현재 인적 교류규모 등 한국과 필리핀간의 오랜 우정과 우호적 관계를 강조하면서 향후 필리핀은 한국과 더 확대된 관계를 갖게 되기를 강력히 희망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자오지칭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외사위원회 주임은 기조연설에서 중국의 경제발전 여정을 자세히 설명하며 현상황과 미래비전에 관하여 언급했습니다. 또한 북·중 관계에 관한 한국의 우려와 불만에 관하여, 중국은 균형적인 구도를 위해 대화를 통해 그 갈등을 해결하려는 것임을 강조하며, 중국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패권'이나 '세계지배'가 아닌 '조화'이며, 일부에서는 중국 모델을 경계하고, 영향력 확대를 추구하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지만,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재삼 강조하고, 제6회를 맞는 제주포럼이 세계적인 포럼으로 발전해나가기를 기원했습니다.

우근민 제주포럼 조직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하여 제주포럼을 통해 아시아 협력과 공존, 세계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사명과 책무를 공감하고 실천해 나가자고 제안하며 “스위스 다보스에서 세계를 뒤흔드는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이 생겨났듯이, 제주포럼을 기점으로 세계평화의 섬 제주에서 ‘아시아판 다보스포럼’이 탄생할 수 있음을 확신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공로명 동아시아재단 이사장은 환영사를 통해 “인간 네트워크를 통한 신뢰 구축”은 제주포럼의 평화와 번영 및 상생적 발전이라는 모토와 일맥상통하는 바, 제주포럼을 통해 활발하고 생산적인 의견이 도출되어 위기에서 평화·번영으로 도약하는 아시아가 되는데 일조하기를 희망했습니다.



폐회만찬에서 변정일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은 ‘새로운 아시아: 평화와 번영을 위하여’라는 슬로건 아래 개최된 제6회 제주포럼은 종전 포럼에서 논의해 온 아시아의 평화 문제뿐만 아니라, 아시아에 속해 있는 모든 국가의 공동번영을 모색하기 위한 대 토론의 장이 되었기에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하였습니다. 이번 포럼을 통한 의견들은 제주특별자치도가 경쟁력을 키우고 명품 국제자유도시로 나가는 데 큰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언급하며 지난 10년간 제주포럼이 아시아 국가 간 교류의 끈을 더욱 돈독하게 하고 지역간 대화가 새로운 차원으로 확대·발전되어가는 디딤돌 역할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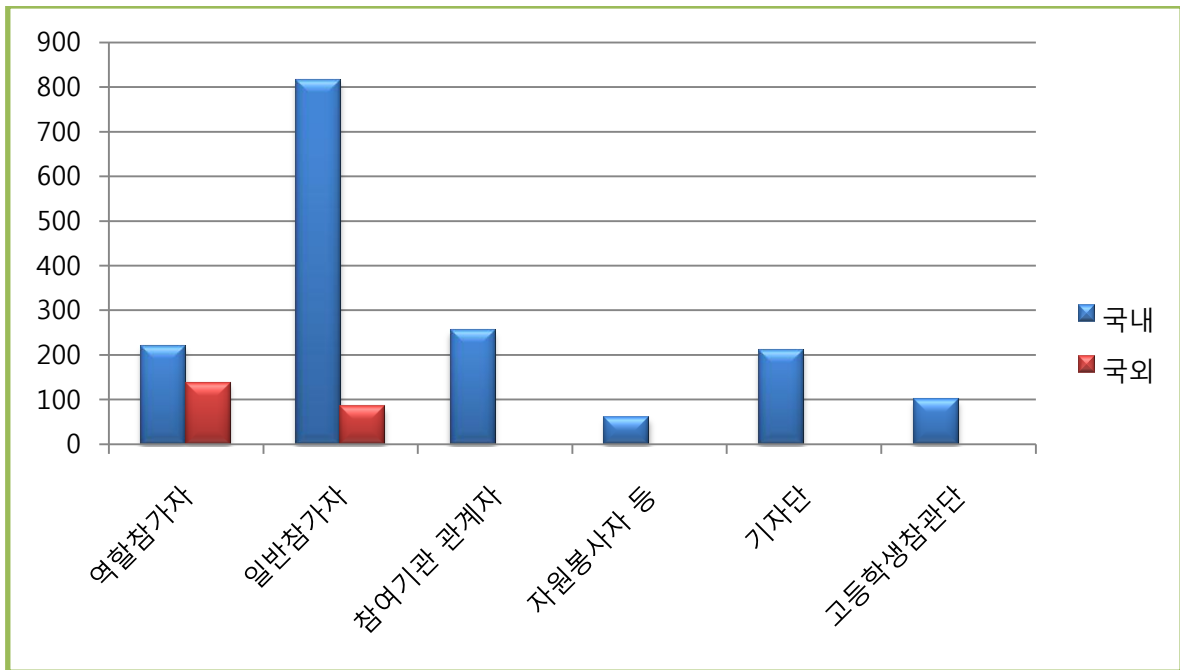
한태규 제주포럼 집행위원장은 폐회사를 통해 “제주포럼이 동아시아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증진하기 위하여 솔직하고 진지한 의견을 교환하고 토론하는 기회를 제공하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하며 앞으로 제주포럼이 동아시아의 역동성에 기초하여 평화와 번영이라는 비전을 추구하는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I. 포럼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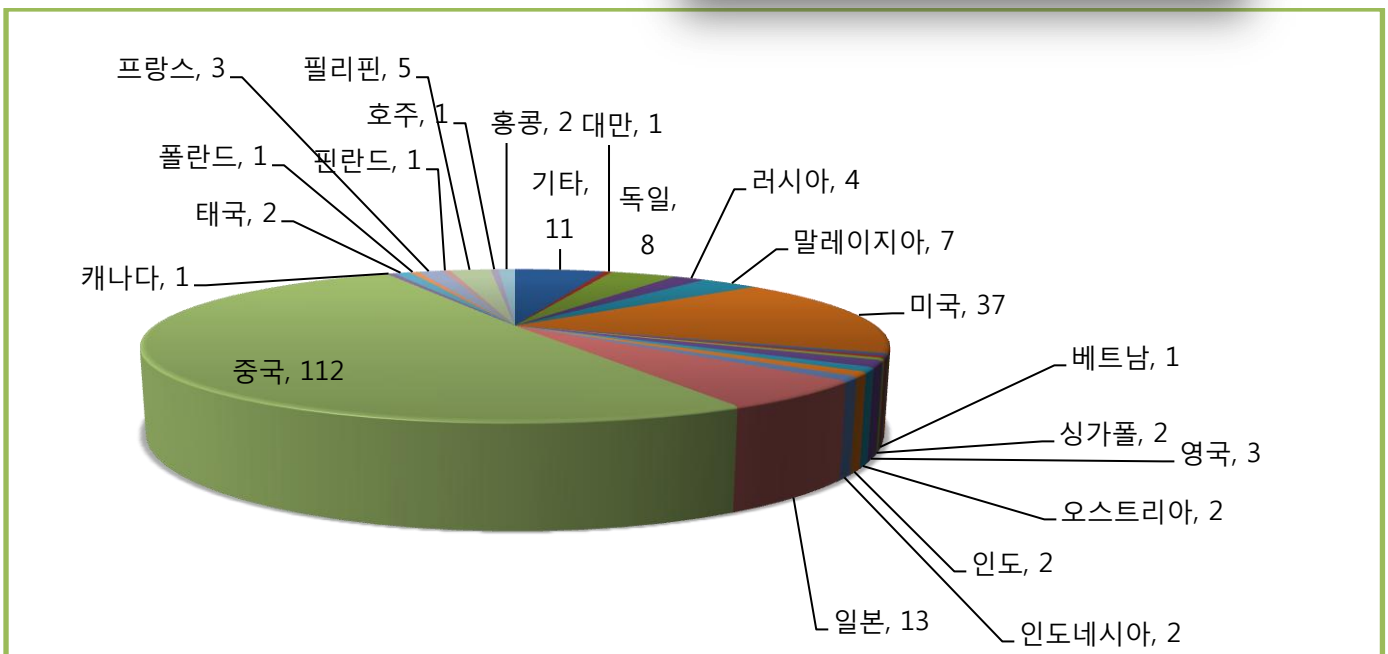
- 제6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전체 참가자 집계

참가자 구분	국내	국외	합계
역할참가자	218 명	137 명	355 명
도외 일반참가자 및 자비참가자	515 명	85 명	600 명
도내 일반참가자	300 명		300 명
참여기관 관계자	255 명		255 명
VIP 수행통역/ 자원봉사자/ 서포터즈	60 명		60 명
기자단	210 명		210 명
고등학생 참관단 및 관계자	100 명		100 명
총계	1658 명	222 명	1880 명



● 국가별 참석자 현황

국가	참석자(인원)
한국	1658 명
대만	1 명
독일	8 명
러시아	4 명
말레이시아	7 명
미국	37 명
베트남	1 명
싱가폴	2 명
영국	3 명
오스트리아	2 명
인도	2 명
인도네시아	2 명
일본	13 명
중국	112 명
캐나다	1 명
태국	2 명
폴란드	1 명
프랑스	3 명
핀란드	1 명
필리핀	5 명
호주	1 명
홍콩	2 명
기타	12 명
총합계	1880 명



6. 총 평

동아시아지역은 여러 면에서 새로운 면모를 보여주고 있으며 동아시아지역경제는 세계 어느 지역보다도 빠르게 성장하면서 세계경제회복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6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은 '새로운 아시아'라는 기치 아래 진지한 토론을 통해 새로운 패러다임과 가능성을 제시하고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질적·양적으로도 향상되었습니다.

세계 22개국에서 참가한 정·재계 관계자, 외교관, 학계전문가의 발표 및 토론은 각 분야에서 참석한 청중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습니다.

참가자 규모 면에서도 역대포럼에 비해 대폭 확대되어 해외참가자 220여명을 포함 총 1800여명이 넘는 참가자 수를 기록하고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특히, 중국 우수 기업인 120여명이 제주포럼에 참가하였으며 참가자 초청과정에서도 제주포럼을 중국에 적극적으로 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내용과 형식면에서 다포스 포럼의 선진적 측면 내지 장점을 본받는 벤치마킹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전체 64개 세션에서 평화는 물론 환경, 경제, 경영, 여성 등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주제를 소화해 냈고, 형식면에서도 가능한 한 많은 참가자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가지고 참여하는 '다보스 방식(Davos Way)'을 도입하여 순조롭게 세션 운영을 했습니다.

제주포럼에 대한 홍보는 질과 양 모두 종전에 비해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중국 신화사통신의 제주포럼 보도 내용이 중국 내 다수 매체에 전재된 점과 중국의 대표적인 인터넷 포털(qq.com)을 통해 제주포럼 뉴스가 널리 전파된 점은 특기할만합니다. 아리랑TV가 제주포럼 개막식 등을 전세계에 방송한 것을 비롯, 주요 언론매체들도 제주포럼 관련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또 우리나라 유수의 중견언론인 10여명이 세션 사회를 직접 진행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도 달라진 면모였습니다.

제주포럼은 명실상부한 세계포럼으로 거듭나기 위해 그 첫 발을 내딛었으며 지역사회에도 기여하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특히 제주도가 전례 없는 유네스코 자연과학 분야 '3관왕'(세계자연유산,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지질공원)으로 선정된 점을 감안해 이번 제주포럼에는 '세계자연유산과 지질환경 보전', '국제보호구역과 제주형 보전 모델' 등 환경관련 세션을 마련해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밖에도 이번 포럼에서는 '제주의 미래비전', '제주 프로세스와 동북아 다자안보체제 구축', '제주국제자유도시와 세계평화의 섬 구현', '제주도의 도시디자인', '제주의료관광 활성화' 등 다양한 제주관련 세션을 마련함으로써 제주도민 참여 및 관심 유도에도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정부에 의해 제주광역경제권 선도산업으로 선정된 마이스(MICE)산업의 발전을 이끌어 갈 인재 양성을 위해 제주도내 대학생 60 여명이 이번 제주포럼 진행에 직접 참여해 MICE 마인드를 현장에서 체득하도록 하는 '제주포럼 서포터즈' 제도를 창안해 실천에 옮김으로써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내 고교생 80여명을 선발해 이번 제주포럼을 참관하는 체험학습 기회를 제공한 것도 호평을 받았습니다.

제6회 제주포럼은 청중으로서 유료참가자를 확보하는 측면에서 성공이었을 뿐 아니라 세션참가자로서 유료참가자를 확보하는 측면에서 성공이었습니다. 제주포럼에 참여하여 세션을 열고자 하는 기관이 증가하는 현상은 제주포럼의 국내외적 위상을 반영하는 성공의 잣대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방향은 포럼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의 하나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은 앞으로 매년 개최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제주특별자치도를 “국제자유도시”와 “세계 평화의 섬”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정신을 배경으로 제주포럼을 동아시아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증진하기 위하여 솔직하고 진지한 의견을 교환하고 토론하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입니다.

동아시아 인들은 상호간에 더 많이 여행하고 교역하며 투자하고 있으며, 역사상 어느 시기보다도 상호 의존도가 높아졌습니다. 상호 이해가 깊어졌고 공동체의식이 함양되고 있습니다. 제주포럼은 이러한 역사적 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동아시아지역에서의 공동체 형성에 회의적이거나 장애물이 있다면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화와 협력이 더욱 필요할 것입니다.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러한 대화와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 나갈 것입니다.

7. 언론보도

세계홍보차원

1. 아리랑 국제방송 (Arirang TV)

1) 개막식, 포럼 소개, 포럼 아젠다에 관한 패키지

- 취재일: 5월 27일(금) - 28일(토)
- 방송일: 5월 28일(토), 19:00-22:00, Arirang News 방송

2) 세계지도자 세션

- 출연자: 박진(사회), 한승수(전 국무총리), 아로요(전 필리핀 대통령)
- 녹화: 5월 28일(토), 09:00-10:00 - 방송일: 6월 4일(토), 16:00, 5일(일) 02:00, 10:00

3) Heart to Heart 프로그램

- 한태규 제주포럼 집행위원장 출연
- 녹화: 5월 23일 - 방송일: 5월 26일(목), 09:30

2. 아리랑 국제방송 (Arirang Radio)

1) 포럼 행사 이전

- Breakfast Club: 한태규 제주포럼 집행위원장 인터뷰(5월 24일)

2) 포럼 행사 중

- 아리랑 뉴스: 5월 27일(금), 07:00, 09:00 14:00, 16:00,
5월 28일(토), 11:00, 18:00
5월 29일(일), 11:00, 18:00
- Breakfast Club: 아시아 평화, 번영모색 제주포럼 개막 소식(5월 27일)
- Saturday Morning Live 개막식 및 김황식 총리 연설 요지 안내(5월 28일)

3) 포럼 행사 이후

- Breakfast Club: 아시아 평화·번영모색 제주포럼 폐막 소식(5월 30일)
- 녹음중계방송:
 - 가. 세계지도자세션: 새로운 아시아: 평화와 번영을 위하여(6월 6일.19일 22:05, Duration : 53'24")
 - 나. 한반도통일과 새로운 기회(6월 7일.26일 22:05, Duration : 53'24")

3. 중국 신화사통신

1) 포럼 전반 내용 보도

- 第六届济州论坛开幕 中国话题受关注(5월 28일)

2) 자오지칭(赵盾正) 인민정치협상회의 외사위 주임 기조연설 보도

- 唯有增加信任才能迎来真正亚洲时代(5월 28일)

3) 신화사통신 보도 널리 전재

- 新华新闻, 新华网, 腾讯新闻, 凤凰网, TOM, 东莞日报, 温州网, 百度 등 전재

4. 중국경제일보

1) 포럼 전반 내용 보도 - 韩国“济州论坛”规模扩大 제목(6월 2일)

5. 중국 인터넷뉴스

일자	주제	사이트 주소(腾讯 QQ) www.TencentQQ.Com
5월 25일~ 6월 2일	济州论坛：新亚洲，和平与繁荣 제주포럼: 신아시아, 평화와 번영	http://news.qq.com/zt2011/JejuForum/
5월 25일	第六届济州论坛即将开幕 讨论亚洲和平与繁荣 제 6 회 제주포럼 개막 임박, 아시아 평화와 번영을 토론	http://news.qq.com/a/20110525/001413.htm
5월 28일	济州论坛开幕 探寻共同繁荣 “제주포럼”개막, 평화와 번영을 공동 추구	http://news.qq.com/a/20110528/000288.htm
5월 28일	济州岛道知事禹瑾敏发表讲话 제주도지사 우근민 연설	http://news.qq.com/a/20110528/000417.htm
5월 28일	第 6 届“济州论坛”关注中国议题 评价中国崛起 제 6 회 “제주포럼” 중국 issue 들 주시, 중국의 발전을 평가	http://news.qq.com/a/20110528/000651.htm
5월 28일	第六届济州论坛开幕 强调亚洲合作 제 6 회 제주포럼개막, 아시아협력 강조	http://news.qq.com/a/20110528/000522.htm
5월 28일	第六届济州论坛开幕 中国崛起发展获高度关注 제 6 회 제주포럼 개막, 중국 발전 주시	http://news.qq.com/a/20110528/000777.htm
5월 28일	第 6 届济州论坛开幕 将成为亚洲合作基准 제 6 회 제주포럼 개막, 아시아 협력 기준 될 것	http://news.qq.com/a/20110528/000676.htm
5월 29일	赵启正：朝鲜改革开放有利于改善其国家现状 자오치정: 조선 개혁개방이 그 국가현황을 개선도	http://news.qq.com/a/20110529/000351.htm
5월 29일	济州组建由 11 名各国专家组成的国际顾问团 제주도가 11 명 전문가로 구성된 국제 고문단 설립	http://news.qq.com/a/20110529/000444.htm
5월 29일	济州委任世界地质公园教授盖伊博士为宣传大使 제주도가 세계 지질공원(GeoPark) Guy 박사를 홍보대사 위임	http://news.qq.com/a/20110529/000531.htm
5월 30일	赵启正：亚洲梦要逐步构建 不应以欧洲为样板 자오치정: 아시아의 꿈은 점차 추구, 유럽 모델로 하지 말아야	http://news.qq.com/a/20110530/000006.htm
5월 30일	亚洲文化论坛主席何志平：用共同体解决争端 아시아 문화 포럼 주석 허지핑: 공동체로 갈등 해결	http://news.qq.com/a/20110530/000011.htm
5월 30일	"新亚洲"倡导人赵东成：中日韩需超越历史恩怨 “신아시아” 창도자 조동성: 종일한 삼국이 역사적 은원 넘어가야	http://news.qq.com/a/20110530/000019.htm
5월 30일	专访大韩红十字会总裁：从自贸区走向亚洲联合 대한적십자회 CEO interview: 자유무역구역부터 아시아연합으로	http://news.qq.com/a/20110530/001339.htm
5월 30일	专访金泰焕：中日韩三国抛开历史恩怨很重要 김태환 interview: 종일한 삼국 역사상의 은원을 포기하는 것이 중요	http://news.qq.com/a/20110530/001341.htm
5월 30일	刘洲伟谈新亚洲:全球化下大地区主义前景不明 류주위가 본 신아시아: 글로벌화 시대 대지역주의 앞날이 불확실	http://news.qq.com/a/20110530/001355.htm
6월 2일	绿色生长委员会：构建东亚绿色生长共同体 녹색성장위원회: 동아시아 녹색성장공동체의 구축	http://news.qq.com/a/20110602/001151.htm
6월 2일	赵东成:济州道自然 景观 首要危害是室外广告 조동성: 제주도 자연경관 제일 큰 문제는 실외광고	http://news.qq.com/a/20110602/001153.htm
6월 2일	济州论坛成功闭幕 제주포럼 성공 폐막	http://news.qq.com/a/20110602/001161.htm
6월 2일	权丙铉：新亚洲希望中国更自信、更有责任 권병현: 신아시아 중국이 더 자신있고 책임있길 바란다	http://news.qq.com/a/20110602/001198.htm

6. 중국 인민일보 자매지 '환구인물' (GLOBAL PEOPLE)

- 1) 포럼 전반 내용 보도
 - 第六届“济州论坛”(6월 6일)
- 2) 우근민 제주도지사 인터뷰
 - 韩国济州道知事禹瑾敏接受本 | 刊专访(6월 16일)

전국홍보차원

1. 종합일간지

- 1) 조선일보
 - “스위스의 다보스포럼처럼 제주포럼, 글로벌 포럼으로” 개막... 우근민 제주도지사 인터뷰(5월 27일)
 - “한국 기업과 영화 합작, 할리우드 공략”...中 최대 영화제작사 폴리보나필름 위동 회장(5월 31일)
 - “일등과 붙으려면 引進, 消化, 再創新”...중국의 ‘철도왕’ 자오샤오강(6월 4일)
 - “중국 기업들, 가격 경쟁서 가치 경쟁으로 옮겨가야 할 시점”(6월 18일)
- 2) 중앙일보
 - 다보스포럼 벤치마킹한 ‘제주포럼’(5월 26일)
 - “세계경제질서 바꿀 뉴 아시아 스탠더드 필요“ (5월 28일)
 - “다보스포럼처럼 제주포럼 키울 것”...우근민 제주도지사 인터뷰(5월 28일)
 - “한국 민족의식 싹튼 시기는 고려...고려인끼리 ‘삼한사람’이라 불러”(6월 1일)
- 3) 동아일보
 - “中, 北변화 역할 안해 비용 치를 것”, “中, 힘으로 北 변화시킬 능력 없어”... 한·중·미·일 전문가 제주포럼’(5월 30일)
- 4) 한국일보
 - ‘아시아 평화·번영 위한 제주포럼’ 27일 개막(5월 26.28일)
 - 美日, “中, 對北 관용적 태도 비용 클 것”, 中 “北체제 변화 점진적 방법 외엔 없다”...제주포럼 전문가들 입장차(5월 30일)
- 5) 한겨레
 - “중, 북 변화유도 책임 다 안해”, “개혁개방 강제 힘들다”, 제주포럼 ‘중국 역할’ 놓고 논쟁(5월 29일)
 - 중 “천안함 사과 매달린 한국쪽 자세 우려”...장관급 고위관계자 자오치정(5월 29일)
- 6) 서울신문
 - “아시아의 평화·번영을 위하여”...국제 거물들 한자리에(5월 25일)
 - “세계시민과 소통하는 국가브랜드 포럼으로”(5월 28일)
 - 김총리 “동아시아 FTA 연대 확대를”(5월 30일)
- 7) 세계일보
 - ‘제주포럼’ 국제거물 한 자리에(5월 18일)
 - “천안함·연평도 사건, 비핵화 연계 바람직 안해”(5월 29일)

2. 통신

1) 연합뉴스

- 중국 경제·정계 거물급 인사들 한국행 나선다(5월 16일)
- 제 6회 제주포럼 개막...아시아 평화·번영 논의(5월 27일)
- 김황식 총리, 제주포럼 기조연설(5월 28일)
- 김총리, “동아시아 FTA 네트워크 확대해야”(5월 28일)
- 아로요 전 대통령 기조연설(5월 28일)
- 우근민 지사, 제주포럼 개회사(5월 28일)
- <인터뷰> 자오치정 中 인민정치협상회의 주임(5월 29일)
- 제주포럼 ‘한반도 통일과 새로운 기회’(5월 29일)
- 제주포럼 한·중·일 협력 전체회의(5월 29일)
- 제주포럼 외교관 라운드 테이블(5월 29일)
- 제주포럼 한·중·일 전문가 인터뷰(5월 29일)

2) 뉴시스

- 제주포럼에 中 유명기업인 대거 참가...여성운동가 글로리아 스타이닝도(5월 13일)
- 제주포럼 27~29일...‘지구촌에 평화·번영’ 메시지(5월 25일)
- 제주포럼 무엇을 논의하나(5월 25일)
- 제주포럼 27일 개막...지구촌 평화·번영 논의(5월 27일)
- 제주포럼에 고등학생 86명 참관(5월 27일)
- 김황식 총리, “우선 남북대화로 北 진정성 확인해야”(5월 28일)
- 김황식 총리, “북한, 핵포기만이 살길”(5월 28일)
- 우지사, “제주포럼 통해 아시아 협력·세계평화 실천”(5월 28일)
- 제주포럼 기조연설하는 자오치정 중국 외사위 주임(5월 28일)

3. 방송

1) KBS

- 김총리, “동아시아 FTA 네트워크 확대해야”(5월 28일)
- “북한 비핵화, 동아시아 평화 최우선 과제”(5월 28일)

2) MBC

- 제 6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외교관 라운드테이블(5월 29일)

3) SBS

- 아시아 평화·번영 모색 ‘제주포럼’ 개막(5월 27일)

4) YTN

- 제주포럼 개막...공동 번영 모색(5월 28일)
- 김총리, “동아시아 FTA 네트워크 확대해야”(5월 28일)
- 녹색위, “동아시아 녹색성장공동체 구축”(5월 29일)

5) 한국경제 TV

- 김총리, “동아시아 FTA 네트워크 확대 필요”(5월 28일)

4. 경제지

1) 매일경제

- 중국 거물 100 명의 경제특강...27~29 일 제주포럼(5 월 23 일)
- 아시아의 다보스포럼...제주포럼 개막(5 월 27 일)
- 제 6 회 제주포럼에서 위동 보나필름 회장 “이병헌 주연 할리우드 영화 만든다” 포부 밝혀(5 월 30 일)

2) 한국경제

- “중국 경제 더 투명해져야 한.중.일 FTA 가능”(5 월 30 일)

3) 헤럴드경제

- ‘제주포럼’ 중국 정재계 거물급 대거 온다(5 월 26 일)
- 김총리 “東亞 FTA 네트워크 확대로 안보불안 해소”(5 월 28 일)
- ‘제주포럼’ 동아시아 예술관광 특화 세션 논길(5 월 30 일)

4) 아주경제

- 제주포럼, 아시아 번영 이끈다(5 월 27 일)
- “모든 국가가 미국처럼 북한을 대한다면?”(5 월 28 일)
- 김황식 국무총리, “FTA 확대 동아시아 경제적 공동 번영 촉진할 것”(5 월 28 일)
- “중국 금융시장은 선택 아닌 세계인의 필수”(5 월 28 일)
- “중국은 북한체제 바꿀 생각 없어”(5 월 28 일)
- “중국 성장으로 아시아 통합 바탕 마련”(5 월 28 일)

5) 아시아경제

- 규모 키운 ‘제주포럼’에 중국 정재계 거물급 인사 대거 참석(5 월 17 일)
- [제주포럼 인터뷰] 양웅철 부회장 “하이브리드차 ‘성취감’ 넘어 ‘자신감’”(5 월 28 일)
- 전직 대통령부터 소림사 승려까지...제주포럼 성황리에 폐막(5 월 29 일)
- 글로리아 스타이넘 인터뷰, “여성에게 필요한 건 ‘물질’이다”(5 월 30 일)

6) 파이낸셜 뉴스

- 제 6 회 제주포럼 개막...아시아 평화 번영 논의(5 월 27 일)
- 김황식 총리, “동아시아 FTA 네트워크 확대해야”(5 월 28 일)
- 양수길 녹색위원장, “한-중 녹색성장공동체 구축 제안”(5 월 29 일)

5. 영자지

1) Korea Herald

- Jeju Forum debates global peace, economy, culture...Prime minister calls for closer cooperation for peaceful and prosperous East Asia(5 월 30 일)
- 'If China acted like U.S., N. Korea would be further isolated'(5 월 30 일)

2) Korea Times

- China's rise vs. Asian rise(6 월 3 일)

6. 주간지

1) 환경비즈니스

- ‘종합 포럼’ 변신...中 정.재계 거물 참여(6월 15일)
- <스페셜 인터뷰>자오샤오강 중국난처그룹 회장 “범아시아 고속철도 네트 워크 꿈꾼다”(6월 15일)

2) 여성신문

- 아시아적 가치로 글로벌 리더십을(6월 3일)
- “‘여성’이 돋보인 국제포럼이었다”(6월 3일)
- ‘살림’의 문화로 ‘죽임’의 문화를 몰아내자(6월 3일)
- “‘자금줄’ 프로젝트 개발해야”(6월 3일)
- “여성이기에 그 발명이 가능했죠”(6월 3일)

제주지역 홍보차원

1. 제주 KBS

1) TV

- 5월 25일.26일.27일.28일.30일에 총 8건 기사 보도
- <생방송 제주가 보인다> 한태규 집행위원장 출연(5월 26일)
- <집중진단 제주> “제주포럼, 무엇을 남겼나”
: 한태규 집행위원장, 강승화 제주특별자치도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양길현 제주대 교수회장,
한군 서울과 학종합대학원 교수 출연(6월 3일)

2) Radio

- <생방송 제주의 오늘> 한태규 집행위원장 출연(5월 25일.30일)

2. 제주 MBC TV

- 5월 25일.26일.27일.28일.30일에 총 8건 기사 보도
- <시사진단> (5월 12일) : 한태규 집행위원장, 강승화 제주특별자치도 국제자유 도시본부장,
고성준 제주대학교 교수, 허정옥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교수

3. JIBS

- 5월 25일.29일.30일에 총 6건 기사 보도

4. 제주 KCTV

- 5월 22일.25일.27일.28일.29일.30일에 총 9건 기사 보도

5. Arirang Radio

- Jeju Newslines (5월 26일.30일, 15시)
- All That Jeju : Kaleidoscope 코너 한태규 집행위원장 출연(5월 16일)
- All That Jeju : 행사 사전 취재/방송(5월 25일, Festa! Festa 코너)
- All That Jeju : 제주포럼 중 각종 행사내용 및 현장 스케치 취재분 방송(6월 1일, Festa! Festa 코너)
- Jeju Weekly : 주최측 및 참가자 인터뷰(5월 26일), 폐막소식/ 제주포럼 총정리(6월 2일)

6. 제주일보

- 5월 13일.25일.26일.27일.28일.29일.31일, 6월 8일에 총 15건의 기사 보도

7. 한라일보

- 5월 13일.25일.27일.29일.30일.31일, 6월 3일에 총 9건의 기사 보도

8. 제민일보

- 5월 13일.15일.25일.26일.27일.28일.29일.30일.31일에 총 18건의 기사 보도

9. 제주매일

- 5월 15일.25일.26일.29일에 총 6건의 기사 보도

10. 제주의 소리

- 5월 13일.25일.26일.27일.28일.29일.30일에 총 18건의 기사 보도

- <인터넷 생중계> ‘한반도 통일과 새로운 기회’, ‘제주의 미래비전’,

‘제주국제 자유도시와 세계평화의 섬 구현’, ‘제주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패널 토론’ 세션(5월 29일)

11. 제주위클리

- 5월 13일.26일.27일.28일.29일, 6월 10일에 총 13건 기사 보도

12. 济州周刊

- 5월 25일, 6월 23일에 총 3건 기사 보도

II. 세션별 주요 논의 내용

평화와 안보

[세계지도자세션] 새로운 아시아: 평화와 번영을 위하여

본 회의는 박진 국회의원의 사회로 글로리아 마파카발 아로요 전 필리핀 대통령 및 한승수 전 국무총리가 아시아 공동체형성과 미래비전, 그리고 아시아 공동체 형성에 있어서의 당면과제를 논의하고 특히 세계 강대국으로서의 중국의 부상, 일본 대지진이후 불거진 원자력 문제, 지구 온난화 문제에 이르기까지 아시아 각국 간의 협력 방안에 대한 아이디어들을 제시했다.



한반도 통일과 새로운 기회

본 회의에는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 광승준 위원장의 사회로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인 이근 서울대 교수의 주제발표와 마크 민턴 미국코리아소사이어티 회장, 발터 클리츠 프리드리히나우만재단 소장, 수창허 상해외국어대학교 국제관계계대학 학장, 에브게니 아파나시예프 러시아 외교부 인사국장, 오코노기 마사오 게이오대학교 명예교수의 토론이 이어졌다.



II. 세션별 주요 논의 내용

[외교관라운드테이블] 한반도 통일과 새로운 기회

본 회의에는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 곽승준 위원장의 사회로 마크 토클라 주한 미국부대사, 이준규 외교안보연구원 원장, 콘스탄틴 브누코브 주한 러시아대사, 토마스 코즐로프스키 주한 EU 대사가 참석하여 한반도 통일에 대한 각국의 입장과 다양한 국제협력 방안에 대해 토론하였다.



[외신기자라운드테이블] 2012년 아시아 태평양 지역 정치변동 예측

본 회의는 김영희 중앙일보 대기자의 사회로 마틴 팩클러 뉴욕타임즈 아이사 특파원, 아르템 산지에프로씨스카야 가제타 한국 특파원, 세바스티엔 팔레리 르피가로 한국특파원, 수미다 타쿠시 교도통신 한국특파원, 이병종 전 뉴스위크 한국특파원이 발표자로 참석하여 주요국의 지도자 교체와 권력변동이 아시아 태평양지역에 가져오는 변화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유엔과 보호책임

본 회의는 최종무 전 주 네덜란드 대사(현 유엔 거버넌스 센터 원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최근 리비아 사태에 대한 국제사회의 개입과 관련하여 주요 쟁점으로 부상한 ‘보호책임’ (Responsibility to Protect)을 주제로 보리스 콘도흐 유엔 평화대학 교수의 발표, 크리스티안 바우레더 유엔 난민고등판무관사무소 보호담당관, 조창범 전 주 호주대사의 지정 토론 및 자유토론으로 열띤 논의를 진행하였다.



중국의 부상: 기회와 도전

개혁개방 이후 급속도의 경제발전을 통한 중국의 부상은 아시아 뿐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 새로운 기회이자 도전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특히 최근 G2 논쟁과 맞물려 세계 패권국가로서의 등장 가능성에 관한 논의들이 진행되어 온 바, 본 회의에서는 나안 찬다 예일대 교수의 사회로 학계, 언론계, 외교가의 전문가들이 모여 이러한 중국의 부상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짚어보고 중국의 부상과 관련된 정치질서의 지형을 전망해 보았다.



동아시아 비핵화는 가능한가? 그 기회와 제약

안보의 최대 사안 중 하나인 핵 관련 이슈와 관련하여 동아시아에서 핵 상황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바, 최고의 핵무기기술을 가진 나라와 핵무기를 가지려고 하는 나라, 핵무기 보유에 대비해 고도의 핵기술을 유지하려는 나라 등이 공존하는 상황에서 자국의 안보와 경제 발전을 이유로 핵개발 기술에 대한 관심은 식지 않고 있다. 본 세션에서는 피터 헤이즈 노틸러스 안보지속가능성연구소장의 사회로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견해를 들었다.



동아시아 해양안보

동아시아지역 해양분쟁은 상존해왔다. 하지만 유독 2010 년은 남중국해, 센카쿠열도, 천안함 사태 등 해양 관련 문제가 대두된 해였다. 특히, 천안함 사태를 둘러싸고 미국과 아시아 해양국가들이 중국의 미온적인 입장을 지적하고, 센카쿠열도 사태로 일본과 중국이 대립하는 등 중국의 책임론이 터져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동아시아지역을 둘러싼 해양문제의 심각성을 중국의 책임으로만 돌릴 수 없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본 회의에서는 후나바시 요이치 전 아사히 신문 주필의 사회로 관련 당사국들의 해양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논의를 가졌다.



II. 세션별 주요 논의 내용

제주프로세스와 동북아 다자안보체제 구축

본 회의는 문정인 연세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노다리 시모니아 모스크바 국립국제관계대학교 교수, 박철희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윤병세 전 대통령 통일외교안보정책 수석, 찰스 모리슨 하와이 이스트-웨스트 센터 회장, 판젠창 중국국방대학교 전략연구소 교수가 발표자로 참석하여 향후 동아시아 다자안보체제 구축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두만강 개발계획과 동아시아 평화

본 회의는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이수훈 소장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20 년의 역사를 두고 느리게 진행되어온 두만강 개발계획이 'GTI (Great Tumen Initiative)'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GTI 는 지역 다자간 협력을 촉진하는 초창기 시도 중의 하나라는 점에서 가장 많은 장점을 가진 사업이며 논의 주제로 중요하다. 제임스 미으닉 노스텍사스대학 틀루즈대학원 원장, 주수 두만강개발사무국 담당관, 타가 히데요시 와세다대학교 사회과학대학원 원장, 홍면기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의 발표로 진행하였다.



역사화해와 동아시아 협력

본 회의에는 동아시아 지역이 진정한 협력의 시대로 접어들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인 역사갈등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세계 각국의 학자들과 외교관들로 패널을 구성하였다. 동아시아 역사갈등의 성격을 어떻게 보는가에 대해 각자의 견해를 제시하고 동아시아에 살고 있는 개인들이 갖는 동아시아인으로서의 지역정체성을 어떻게 하면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토론하였다. 또한 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연구와 활동의 경험에 기초하여 이 지역에서 지역공동체 형성의 가능성에 대해 진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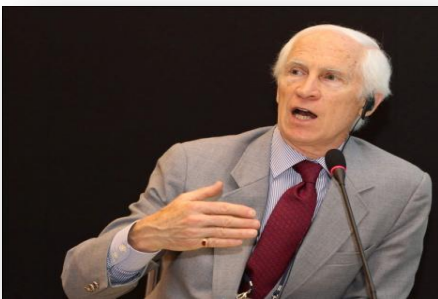
[기조연설] 한·중 협력

새로운 아시아 이슈에 대해서 논의할 때 “중국의 부상”이라는 이슈를 빼놓을 수 없다. 한중 수교 이래에 급속히 교류관계를 구축하게 될 뿐만 아니라, 국가경제에 관련된 각 분야에서는 다양한 협력활동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아시아의 평화 번영을 달성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한중 양국의 협력의 수준을 한단계 올리는 것은 시급한 과제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회의는 한태규 제주평화연구원장의 사회로 김도연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양수길 녹색성장위원장, 이희범 STX 에너지 회장 및 자오샤오강 중국 남차그룹 회장 등 양국 협력관련 최고위 인사들이 모여 심도 있는 토론을 나누었다.



북한의 권력계승과 개방개혁 전망

북한에서 추진 중인 세습적 권력계승은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세계사적인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 북한의 안정성 문제는 단순히 한반도 평화와 번영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고 동북아, 나아가 아시아 태평양 전역의 안보 문제와 관련되는 바, 본 세션에서는 미 버클리대 펄펠 교수의 사회로 한국, 미국, 중국, 일본, 영국의 각계 안보 관련 석학이 모여 향후 북한 권력 승계 및 이와 관련된 개방의 가능성 문제를 짚어보며 향후 평화 구현 가능성을 타진해보았다.



평화연구의 최근 이슈와 과제

오슬로국제평화연구소(PRIO)의 스캇 게이츠 교수는 지난 평화연구의 흐름을 소개하고 앞으로 평화연구의 과제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에 제주평화연구원의 이성우 연구위원은 세계 평화 지수의 측정 방법을 소개한 후, 이의 적용에 대해 미국과 6 차 회담국가인 한국, 중국, 일본, 북한, 러시아와의 협력, 갈등 경향을 사례로 들어 살펴보았다. 이상환 한국외국어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본 회의는 스캇 게이츠 교수와 이성우 연구위원의 발제와 더불어 제임스 미어니크 노스텍사스 대학 교수, 정기웅 한국외대 국제지역연구센터 연구교수가 토론자로 참석하여, 평화연구에 대한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



II. 세션별 주요 논의 내용

제주국제자유도시와 세계평화의 섬 구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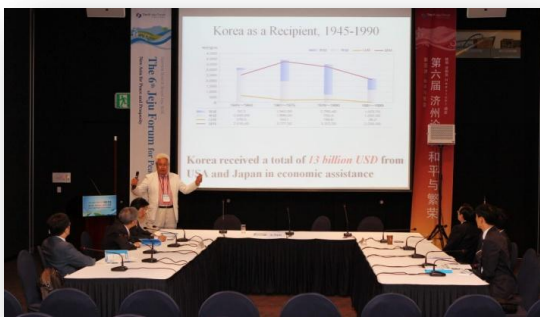
제주특별자치도가 그 지경학적 위치를 적극 활용하여 미래에 가시화 될 '동북아 경제공동체'의 중심역할을 맡고자 하는 게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청사진이라 할 수 있다. 본 회의는 고성준 제주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강승화 제주도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김창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경영기획 본부장,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 의회 운영위원장, 유지은 국제관계자문대사, 좌승희 경기개발연구원 이사장 등이 참석하여 향후 국제자유도시와 세계평화의 섬을 성공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국제자유도시사업 추진의 현황과 평가, 전망에 대하여 논의하고 국제자유도시사업과 세계평화의 섬 달성을 위한 제주도민의 노력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환경

유엔글로벌콤팩트와 5W 프로젝트를 통한 새천년개발목표(MDGs)에 기여 I · II

본 회의는 서울글로벌콤팩트연구센터와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가 제시한 새천년개발 아젠다인 5W의 (World, Weather, Water, Wisdom, and Welfare) 쟁점들을 구체적으로 다루어봄으로써 세션 I에서는 향후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 문제를 논의한 바, 주철기 전 주 프랑스대사의 사회로 김기석, 김전 서울대 교수의 발표로 진행되었다. 세션 II에서는 물 문제해결 방안과 생태계의 효과적 보존방안에 대해 윤여창, 이도원, 이호영, 한무영 서울대학교 교수의 발표가 진행되었다.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 지진 및 쓰나미 위험

본 회의는 신호상 서울과학종합대학원 입학·학생처장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2011년 3월에 발생한 일본 도후쿠 지역의 지진, 해일 재난 및 미증유의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유출사건과 관련하여 서울대학교 지구환경시스템 공학부 김재관 교수의 분석을 바탕으로 동북아 및 아시아 전역의 새로운 인간안보의 문제로 부상한 자연재해와 그 대응에 관한 함의를 논의하였다.



거세어지는 기후변화와 강력해지는 재난, 대응책은 있는가

본 회의는 서울과학종합대학원 허정옥 교수의 사회로 기후변화와 재난에 대한 대응책을 모색하였다. 박연수 소방방재청장은 본 회의의 기조연설을 통해 우리나라는 재난에 있어서 세계평균의 2 배 이상이라고 지적하고, 기후변화와 재난에 대한 대응책의 모색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하였다. 이어서 청중들도 토론에 참여하여, 재난관리시스템 구축에 중소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현재 재해에 대한 대비책이 아직도 선진국의 수준에 비하여 뒤쳐져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세계자연유산과 지질환경보존

본 회의는 세계자연유산을 보호하고 인류의 보편적 자산으로 보존, 활용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과 관련하여 최근 부상하는 지질공원(Geopark)의 의미와 개념, 그리고 향후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세션으로서 유재건 한국유네스코협회연맹 회장의 사회로 기 마티니 세계지질공원 운영위원, 이브라힘 코무 아태지질공원 네트워크 공동의장, 이용일 대한지질학회장 등 전문가들의 발표로 진행되었다.



II. 세션별 주요 논의 내용

그린에너지 응용기술과 신사업기회

그린에너지 기술의 개발과 운용을 국가전략으로 제시하고 있는 국가들과 기존 산업간 융합을 통해 발전을 시도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들은 새로운 도전과 기회에 동시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상황에 정부 차원의 그린에너지 기술을 어떻게 육성할 것인지, 기업의 입장에서 그린 에너지 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사업 기회를 어떻게 발굴할 것인지에 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본 회의에서는 현오석 한국개발연구원장의 사회로 한국과 중국의 전문가들이 모여 아시아 국가들의 그린 에너지 동반성장을 위한 구체적 방안들을 모색하였다.



국제보호구역과 제주형 보전모델

본 회의에서는 최청일 유네스코 MAB 국제조정이사회 의장의 사회로 이병욱 세종대학교 교수, 이상돈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조도순 카톨릭대학교 교수, 윤용택 제주대학교 교수가 발표자로 참석하여 제주의 국제보호지역 보전모델은 어떠한지, 세계에서 보편적인 모델로 제시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논의 하였다.



DMZ 평화·생태적 이용·보존을 위한 국제협력

본 회의에서는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구체적 협력 사례 중 하나로 비무장지대의 평화, 생태적 이용에 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이해 증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평화정착과 동북아 공동번영에 기여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모색하였다. 이춘호 DMZ 미래연합 상임대표의 사회로 김귀곤 서울대 명예교수가 주제발표, 문성욱 전 남북군사실무회담 수석대표, 손기웅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이재승 고려대 교수 및 함광복 DMZ 연구소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경제 및 경영

경제발전에 따른 국격에 맞는 선진원조 동향

본 회의는 세계 최빈 수원국에서 원조 공여국으로 발돋움한 한국의 원조 정책 현황 및 향후 정책 전망을 다룸으로써 향후 중견국가로서 국제사회의 개발을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 전략과 실천 방안을 모색한 바, 허영도 울산대 교수의 사회로 안충영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과 백권호 영남대 교수의 발표로 진행되었다.



중국 기업의 한국 상장 (上場)

본 회의에서는 중국 기업의 한국 상장 전문가인 삼성증권, 상장에 관련된 회계 실무 전문가인 딜로이트와 법률실무 전문가인 법무법인 광장 등 실무 경험이 많은 전문가들이 모여 한국 시장 진출에 관심이 있는 중국기업들의 한국 상장의 필요성과 장점, 그리고 구체적인 요건 및 절차 등 이슈에 대하여 활발한 논의가 전개되었다.



한국기업의 지속경영

지속경영은 시대적 요구에 의해 이제 기업의 목표이며 필수적 고려사항이 된 바, 이는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할 뿐만 아니라 환경의 개선과 사회적 기대에 책임을 다할 때 실현할 수 있다고 보았다. 김재은 산업정책연구원 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한국기업의 지속경영 세션에서는 한국기업의 지속경영관련 최고의 사례를 소개하고 지속경영의 경험들을 공유하는 계기가 되었다.



II. 세션별 주요 논의 내용

New Asia Standard

본 회의는 전체회의로 진행되었으며 전세계의 주요 관심사 중 하나인 ‘새로운 아시아’에 관한 화두들을 논의하고 향후 아시아의 미래에 관한 전망을 나누는 유용한 기회였던 바, 기존의 글로벌 스탠다드 개념과 함께 뉴 아시아 스탠다드를 논의하는 장이 마련되었다. 강효상 조선일보 보도본부장의 사회로 윤은기 중앙공무원교육원장, 리웨이안 동북재경대학교 총장 등 한국과 중국 전문가들의 활발한 토론이 전개되었다.



G20 시대, 금융시장 체제 변화와 뉴아시아 전망

본 회의에서는 G20 이후 새로운 글로벌 금융과 경제표준을 모색하는 국면이 전개되는 새로운 환경을 맞아 기존의 행동 패턴에 변화가 나타남에 따라 이러한 새로운 경제 및 금융 환경 변화를 조명하고, 이 변화가 아시아 국가와 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논의하였다. 조동성 서울대 교수의 사회,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의 기조발표, 버지니아 캄스키 미국 캄스키 경영자문사 대표, 셴 닝 JP 모건 아태지역 부사장, 진수형 한국 거래소 부이사장이 발표와 토론을 전개하였다.



G20 과정의 금융규제개혁과 안전망

2008 년 금융위기를 통해 국제사회의 위기관리, 특히 금융위기를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전략과 행동지침에 관한 조율된 역량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증대되었고, 이에 G20 라는 새로운 글로벌 거버넌스가 등장했다. 본 회의에서는 G20 차원에서의 금융규제개혁 및 안전망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박영철 고려대 교수의 사회로 경제학계, 금융계 전문가들이 모여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누었다.



비즈니스 신세력: 아시아 청년 리더

본 회의는 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번영의 미래 주역인 청년 리더들의 자질과 방향성에 관해 성공한 각계 청년 리더들의 이야기를 듣고, 경험을 공유하며 향후 지역 발전을 위한 미래 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한 기대로 구성되었으며 최은수 매일경제 편집국 부장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G20 이후 도시경영의 새로운 도전

국가, 기업과 함께 글로벌 경쟁의 3 대 요소인 도시경영은 이미 많은 국가들이 피할 수 없는 중요한 경제이슈가 되었으며 도시 경영에 대해 새롭게 정의하고 어떻게 운영체계를 성공적으로 구축하는가 하는 것이 오늘날의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본 회의에서는 신철호 성신여대 교수의 사회로 도시개발, 운영, 경영관련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상기 이슈인 도시경영의 미래와 도전을 다루어보고, 본격적인 글로벌라이제이션의 주요 동력으로서 도시경영의 비전관련 함의를 모색하고자 하였다.



Green Mega Trends in Business and World

본 회의는 최근 부상하는 환경 이슈와 이에 대응하는 녹색성장 트렌드와 맞물려 Green Mega Trend 란 주제로 글로벌 환경 문제와 비즈니스 환경의 측면의 변화를 조명하는 회의로 진행되었다. 이상호 경성대 교수의 사회로, 구자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무처장, 김성우 삼성 KPMG 본부장, 김용연 한전 전문위원, 서영태 쿼테샤인베스트먼트 대표, 윤인모 닥터서비스대표 및 한석희 린디자인아시아 대표 등 전문가들이 모여 녹색성장, 중국과 한국의 발전설비에 대한 비교, 그린 헬스케어, 저탄소 시장 등 심층적인 주제에 대한 논의로 진행되었다.



II. 세션별 주요 논의 내용

전자상거래의 WEB 3.0 전망, 온라인 게임

본 회의는 전자상거래의 기존 표준으로 자리잡아온 Web 2.0 에서 진일보한 새로운 체제로 예상되는 Web 3.0 과 운영 메카니즘에 관한 논의를 주제로 하여 이학영 한국경제신문 편집부국장의 사회, 린동량 중국 IDG 그룹 설립자, 민용재 YJM 인베스트먼트 대표 및 왕슈팅 DH gate.com 사장 등의 발표로 진행되었다.



G20 이후 국가와 도시경쟁력의 새로운 이슈

글로벌한 시대에 경쟁력의 범위가 확대되어 가고 있는 지금 도시경쟁력의 총합이 국가경쟁력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도시경쟁력을 상승시키는 제반 전략과 이행 방안은 기존의 하드파워를 강화시키는 것 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소프트파워의 개발에 달려 있다는 점에서 박영균 동아일보 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본 회의는 향후 등장하는 새로운 이슈들을 선점한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기획이었다.



G20 이후 다국적 기업의 세계성공전략

세계 경제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인 다국적 기업들은 선진국내 투자 기회가 점점 축소되면서 아시아로 시선을 집중하고 있다. 이미 다국적기업들은 아시아에서 다양한 노하우를 구축했지만, 새로운 환경의 변화와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의 경제로 인해 새로운 시장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에 새로운 전략과 기업경영 원칙이 필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본 회의에서는 정찬배 YTN 차장의 사회로 아시아에서 성공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기업가들이 아시아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토론하고, 중국에서 성공한 기업가들의 성공 경영 노하우를 교환 하였다.



한국 기업의 중국 상장 (上場)

중국의 관점에서 현재는 자금초과 상태이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장의 국제화를 도모할 것이 분명한 바, 한국기업의 관점에서 본다면 하더라도 중국자금의 조달필요성은 대단히 높아지고 있으며, 또한 점증하는 한국기업의 중국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나아가 현지화 전략차원에서 한국기업의 중국 상장은 우선순위가 높은 정책과제이다. 이번 회의는 강정호 서울과학교총합대학원 지속가능경영원장의 사회로 전문가들이 한국기업의 중국 상장이라는 주제를 다루었다.



중국! 14억 시장으로 달려가자

중국은 '세계최고의 시장' 이라고 불릴만큼 경제적으로 크게 성장하고 있고, 한국도 이를 간과하지 않고 중국으로의 사업확장을 진행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중국에의 사업진출이 성공하기 위한 기획 및 방법에 관한 해안들을 나누어야 할 필요에 의해 본 세션이 기획되었다. 강미은 숙명여대 언론정보학부 교수의 사회로 중국관련 사업가들 및 현지 사업관련 관료들의 의견들을 교환하였다.



아시아의 가치와 글로벌 리더십

본 회의에 참석한 김성회 CEO 리더십 연구소장은 아시아의 시대를 맞아 아시아적 가치에 기반한 새로운 리더십상을 제안하며, 동서양의 가치를 융합한 글로벌 스탠다드 리더십으로 연결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이보균 카길 애그리퓨리나 사장도 동양의 가치와 서구적 실용주의는 결코 배타적이지 않고 상호 접목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지역 단위에서 글로벌 가치를 수용, 접목하는 글로벌라이제이션의 의미를 새롭게 제안했다.



II. 세션별 주요 논의 내용

동양철학과 기업가 정신 그리고 지도자의 자선활동

일반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서구의 경영기법과 이윤창출 전략의 한계를 넘어서서 동양철학에 천착하여 새로운 경영전략과 기업가정신을 모색하는 의미에서 본 회의는 이의철 아시아경제신문 정치경제부 부국장의 사회로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새로운 경영 패러다임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산업보안 정책의 오늘과 내일

최근 벌어진 현대 캐피탈, 농협 해킹, 전산망 중단 사건들을 통해 일반 국민들에게도 기업의 보안 정책과 시스템의 중요성이 인지되었다. 본 회의에서는 정진홍 서울과학종합대학원 산업정보대학원장의 사회로 전문가들이 모여 이러한 보안 정책의 현재와 미래의 행보에 관해 논의해보고 법적, 정책적 함의들을 찾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융합학문으로서의 경영학의 미래

본 회의는 다양한 전공배경을 가진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교수진이 각자의 전공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학문 융합적인 경영학을 교육·전수하는 함의와 방법에 관한 지혜를 공유하기 위해 구성되었으며 서울과학종합대학원 입학, 학생처장인 신호상 교수의 사회와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교수진의 발표와 토론으로 이루어졌다.



제주의 미래비전

국제자유도시로 자리잡아가는 제주는 최근의 다양한 발전 사례에 안주하지 않고 새롭게 도약하려 하고 있는 바, 이 시점에서 국제사회의 협력 및 공동대응의 필요성을 논의하는 제주포럼을 통해 제주의 국제적 지속가능한 미래 비전을 논의하였다. 새로이 구성된 제주특별자치도 국제고문단 위원들로부터 제주의 미래비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았다. 이태식 전 주미대사의 사회, 우근민 지사 등 주요 인사들의 발제와 토론으로 제주의 미래비전을 구체적으로 탐색하는 의미있는 시간이었다.



세계무역, 통화전쟁, 자유무역협정: 보호무역주의인가, 자유무역주의인가?

본 회의는 안충영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의 사회로 라지브 쿠마르 인도상공회의소 소장, 에이미 잭슨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소장, 왕용 북경대학교 국제대학 교수, 정인교 인하대학교 교수, 최석영 외교통상부 FTA 교섭대표가 발표자로 참석하여 통화전쟁, 자유무역협정이 보호무역주의인지 진정한 자유무역주의인지에 대한 평가 및 모든 나라에 이익이 되는 국제무역질서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아시아 자동차 산업의 미래: 디자인+신표준

본 회의는 국내외 자동차 산업관련 각계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기존의 자동차 산업의 구도하에 후발주자인 아시아 자동차 기업들이 세계 최고가 되는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고, 새로운 변화인 디자인과 아시아 시대를 맞이하여, 기존의 규칙들은 재정의하고 새로운 게임법칙을 논의했다.



II. 세션별 주요 논의 내용

장수기업

최근 국내 일부 연구단체에서 장수기업의 공통된 DNA 를 찾기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 바, 본 회의에서는 조동성 서울대 교수를 좌장으로 이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중국, 유럽, 미국, 일본 등 전 세계 장수기업이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100 년 이상 된 기업이 왜 별로 없는지, 우리 사회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기업 내부적으로 어떻게 장수기업이 될 수 있는가를 함께 살펴보았다.



교육

동아시아 교육협력 네트워크 강화

본 회의는 동북아시아 지역 교육협력 네트워크 강화와, 세계적으로 한국학에 대한 관심 촉진과 확대를 위한 방안이라는 주제로 각계 전문가들의 발제와 토론이 이어졌다. 시에타오 북경외국어대학 교수는 동북아의 교육협력의 현황 분석을 토대로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제안을 하고, 존 던컨 UCLA 한국학센터 소장은 그 간의 한국학 e-learning course 실행 경험을 통해 중남미 지역의 한국학 프로그램 개설 수요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고, 크리스틴 리 와세다대학 교수는 일본에서의 한국학 인식에 대한 문제점을 짚고 추후 일본에서의 한국학 발전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최현선 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학사업부 부장은 올해 출범한 'Global E-School' 프로그램을 통해 동아시아 교육협력 네트워크 강화 뿐 아니라 한국학 확대 방안을 소개하였다. 사회자 문우식 서울대 교수 또한 동아시아 교육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사례로 한국 교육부와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캠퍼스 아시아'를 소개하였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미래와 고등교육의 역할

본 회의는 고등 교육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부상하는 현 시점에서 아태지역의 미래를 담보할 고등교육의 역할과 의미에 관해 호주국립대학교, 일본 게이오대학교, 중국 동북재경대학교, 베트남 트라이비에트 대학교 총장 및 전 제주대학교 총장이 모여 함께 논의하는 장으로 마련되었으며, 허항진 제주대 총장, 문정인 연대교수의 공동사회로 진행되었다.



의료

저개발국 감염성질환 퇴치를 위한 국제협력

국제협력의 여러 아젠다 중 저개발국의 감염성 질환 퇴치 관련 이슈는 인류 보편의 복리 증진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바, 본 회의는 국제백신연구소 한국후원회 박상대 이사장의 사회로 교육과학기술부 방연호 과장, 국제백신연구소 앤써니 플린 사무총장, 존 클레멘스 국제백신연구소 자원개발담당 사무차장이 발표를 맡아 진행되었다.



[의료관광 I] 국내외 의료관련정책 및 성공사례 발표 및 토론

본 회의는 표정호 순천향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프렘 쿠마 나이어 레플츠병원 부원장, 라울 칸데르왈 아플로병원 운영관리자, 이철 연세의료원 원장이 주제발표자로 참석하여 국내외 의료관광 성공사례를 발표하고 토론하였다.



II. 세션별 주요 논의 내용

[의료관광 II] 제주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패널토론

천혜의 자연환경과 접근성으로 의료관광활성화의 최적지로 평가받고 있는 제주 지역의 의료 관광에 초점을 맞추어 김철중 조선일보 기자의 사회로 이동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의료사업 차장, 김민수 제주한라병원 외과부 부장, 김형진 KPMG 상무, 박영수 제주관광공사 사장, 이상준 아름다운 나라 피부과 원장, 이선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이왕준 병원협회 정책이사, 최건 서울우리들병원 원장, 인요한 연세 세브란스 병원 국제진료센터장 등이 참여하여 활발한 토론을 벌였다.



장수인의 비밀

본 회의는 양영오 제주발전연구원장의 좌장으로 박상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가 장수인의 특징과 웰빙 장수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대책, 건강하고 행복한 웰에이징(Wellaging)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또한 고승한 연구실장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장수지역 제주도의 장수마을과 장수인의 특성에 대하여 발표하였으며 박주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이 참석하였다.



문화

소셜네트웍스 시대, 언론이 나아가야 할 방향

인터넷 언론, 트위터 등의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정보취득 방식이 변화하고 있는 현시대의 새로운 기술과 정보 혁신의 추세와 관련하여, 최근 소셜 네트워크의 파급력이 강화되는 바, 제주포럼은 관련 세션을 구성하여 이러한 사조를 반영하여 홍지아 경희대 교수의 사회로 전통 언론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고, 아시아 언론의 메커니즘과 아시아 언론의 협력 필요성에 대해 토론하였다.



아시아 문화 퓨전과 공동체 건설

본 회의는 흥기원 숙명여자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고정민 흥익대학교 교수, 리우칭 중국국제문제연구소 미국연구소 소장, 박인택 (주)TOUCHSKY 대표이사, 정한용 엔터코리아 컴퍼니 대표이사, 한경아 소앤아츠 대표이사가 발표자로 참석하여 아시아 속에서 '한류'의 위치와 그 무한한 가능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한·중 예술 관광

본 회의는 1000 만 외래 관광객 시대를 목전에 두고 있는 현 상황에서 향후 동아시아 예술관광 분야를 특화시켜 관광 허브를 조성하려는 비전에 관하여 논의하고, 이를 위한 레저 비즈니스 프로젝트를 바탕으로 보다 구체적인 실행 전략을 고민하고자 개최된 바, 최석호 서울과학종합대학원 레저경영대학원장의 사회로 관련분야 제 전문가들이 모여 치열한 토론을 전개했다.



Creative Industry: 아시아의 美(영화, 언론, 패션)

영화산업에서 아시아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점차적으로 커지고 있는 최근의 추세에서, 특히 중국은 무한한 시장 가능성과 발전 가능성을 점차 현실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시아가 어떻게 헐리웃으로 대표되는 서구와 경쟁할 수 있는지, 그리고 상생의 길을 모색해 보는 차원에서 본 회의가 구성되었고, 김동호 부산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의 사회 및 각계 영화감독, 제작자, 및 학계 인사 등의 패널 발표로 진행되었다.



II. 세션별 주요 논의 내용

브랜드

리딩 브랜드로의 도약: 국가/지역브랜드 현황과 미래

본 회의에서는 G20 의장국이자 세계경제규모 7 위의 '대한민국' 브랜드가 세계 속에서 리딩브랜드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 수립을 위해 이남식 전주대학교 총장이자 국가브랜드 위원회 위원이 '국가브랜드의 현황과 미래'라는 주제로 발표하고, 국가브랜드 향상과 함께 지역차원의 브랜드 향상 노력으로 제주도 사례에 대한 김윤정 탐라대학 교수의 '제주도 브랜드 현황 및 과제' 발표가 이어졌다.



여성

지식 재산 시대, 여성의 중요성

미래 사회를 규정 짓는 변화의 인자 중 하나로 보여지고 있는 여성의 파워는 이미 세계 곳곳에서 입증 되고 있으며, 21 세기 지식재산 시대에서 여성들의 창의력 개발과 지식재산권 활동은 국가 산업 경제의 새로운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세션에서는 한미영 한국여성발명협회장의 사회로 각 분야 여성 리더들을 초청하여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여성들의 활동 현황, 성공한 여성 특히 기업들의 지식재산권 전략 등을 토론 하고 세계 여성 발명 기업인들 간의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여성, 창조성, 문화: She's Coming

여성의 감성과 소통, 나눔과 관계, 그리고 창조성은 지식창조의 시대에 가치있는 문화콘텐츠를 생산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본 회의에서는 세계적인 페미니즘 저널리스트인 글로리아 스타이넴의 주제발표를 중심으로 문화산업내에서 구현되는 여성들의 창조활동에 대해 진지하고 흥미로운 토론을 가졌다.



경영디자인 트랙

경영디자인 트랙에서는 리처드 부캐넌 케이스웨스턴리저브 대학 교수의 기조연설로 시작하여, 유럽 아메리카 아시아 경영의 흐름, 제주의 도시 디자인, 디자인 경영 교육에 대한 대학 지도자들의 토론, 협력, 상호 학습, 융복합 교육을 주제로 총 6 개의 세션이 진행되었다. 경영에 디자인을 접목한 세션으로 제주도의 도시디자인에 대한 과제 및 디자인 정책 등이 논의되었다.



1. 제 6 회 제주포럼 결과 홍보 및 만족도 조사

- 제주포럼의 의미와 성과를 참가자뿐만 아니라 학자, 관료, 언론인 및 일반 대중은 물론 국내외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홍보하고 활용될 수 있도록 함
- 평화와 안보, 경제와 경영, 정치, 문화, 환경, 등 다양하게 논의된 내용을 자료로써 축적하고 이를 세계 각국에 전파
- 동아시아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연계된 지식(Network Knowledge)과 정책교류(Policy Communication)의 장으로서의 제주포럼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홍보 및 커뮤니케이션 전략수립

1) 포럼 영상 및 오디오 자료 정리·배포

2) 제주포럼 결과자료집 발간

- 포럼 세션별 요지 정리
- 발행언어: 국·영문
- 배포: 국내외 포럼 참석자, 국내외 주요대학 및 관련 연구기관

3) 제주포럼 웹사이트(www.jejuforum.or.kr) 정비·개편

- 제 6 회 제주포럼 자료 정리 및 수록

4) 제 6 회 제주포럼 평가 및 제 7 회 제주포럼 의제 개발을 위한 조언

- 조사방식: 이메일 설문조사
- 조사대상: 제 6 회 제주포럼 국내 참가자 450 명

2. 제 7 회 제주포럼 추진계획

1) 제주포럼 상설 사무국 발족 추진

- 제주포럼 장기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제주발전연구원)
- 제주포럼 조직과 운영에 관한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평화재단간 합의서 체결

2) 상설 사무국 발족시까지 제주평화연구원이 제 7 회 제주포럼 준비

별첨: 행사일정표

· 회의 진행 언어 : 한국어, 영어, 중국어

시간	5월 27일 (금)					
8						
10						
9						
10						
11						
12						
13	등 록					
	크리스탈 홀 A	크리스탈 홀 B	크리스탈 홀 C	크리스탈 홀 D	다이아몬드 홀	에메랄드 홀
14	유엔과 보호책임 p.9	DMZ 평화·생태적 이용·보존을 위한 국제협력 p.10	경제발전이 따른 국력에 맞는 선진원조 동향 p.11	유엔 글로벌compact와 5W 프로젝트를 통한 새천년개발목표 (MDGs)에 기여 I p.12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지진 및 쓰나미 위험 p.13
15	커피브레이크					
16	두만강 개발계획과 동아시아 평화 p.14	아시아 문화 유전과 공동체 건설 p.15	리더 브랜드로의 도약 국가/지역브랜드 현황과 미래 p.16	유엔 글로벌compact와 5W 프로젝트를 통한 새천년개발목표 (MDGs)에 기여 II p.12		거세어지는 기후변화와 강격해지는 재난 대응책은 있는가 p.17
17	커피브레이크					
18	세계자연유산과 지질함경보존 p.18	중국 기업의 한국 상정(上場) p.19	한국기업의 지속경영 p.20	저개발국 감염성질환퇴치를 위한 국제협력 p.21	전체회의 I New Asia Standard p.22	한·중 예술 관광 p.23
19	휴식 및 이동					
	자유민찬 섬모라					

5월 29일 (목)						시간
종료						8
전체회의 II 그랜드볼룸 (세계지도지션) 새로운 아시아: 평화와 번영을 위하여 p.24			전체회의 III 다이아몬드 홀 G20 시대, 금융시장 체제 변화와 뉴아시아 전망 (기조연설) p.25			10 20 30 40 50
커피브레이크			커피브레이크			10 20 30 40 50
개회식 기조연설 그랜드볼룸 p.26						10 20 30 40 50
이동						10 20 30 40 50
자유오찬 하노루, 아디, 섬모라						13
크리스탈 홀 A	크리스탈 홀 B	크리스탈 홀 C	크리스탈 홀 D	다이아몬드 홀	에메랄드 홀	
중국의 부상 기획과 도전 p.27	G20 과정의 금융규제개혁과 인연망 p.28	지식 재산 시대, 여성의 중요성 p.29	비즈니스 신세력: 아시아 청년 리더 p.30	G20 이후 도시경영의 새로운 도전 p.31	Green Mega Trends in Business and World p.32	10 20 30 40 50
커피브레이크						10 20 30 40 50
동아시아 비핵화는 가능한가? 그 기회와 제약 p.33	동아시아 교육협력 네트워크 강화 p.34	전자상거래의 WEB 3.0 전망, 온라인 게임 p.35	G20 이후 국가와 도시경영력의 새로운 아슈 p.36	G20 이후 다국적 기업의 세계성공전략 p.37	한국 기업의 중국 시장 上場 p.38	10 20 30 40 50
커피브레이크						10 20 30 40 50
동아시아 해양안보 p.39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미래와 고등교육의 역할 p.40	역사화해와 동아시아 협력 p.41	Creative Industry: 아시아의 美 (영화, 언론, 패션) p.42	중국 14억 시장으로 달려가자 p.43	아시아의 가치와 글로벌 리더십 p.44	10 20 30 40 50
휴식 및 이동						10 20 30 40 50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주최 환영연찬 그랜드볼룸 (문화공연) p.44						19
휴식 및 이동						30
Global Asia Night 크리스탈 홀 B p.44						21 22

시간	5월 29일 (일)									
8	등록									
10	<p>크리스탈 홀 A 그린에너지 응용기술과 신사업 기획 p.45</p>	<p>전체회의 IV 다이아몬드 홀 한·중·일 협력(기조연설)</p>				<p>경영디자인 기조연설 에머랄드 홀 p.67</p>				
9						<p>커피브레이크</p>		<p>커피브레이크</p>		
10						<p>경영디자인 크리스탈 홀 A 유럽·아메리카·아시아 경영의 흐름, 제주의 도시디자인 p.67</p>		<p>전체회의 VI 그린드블룸 한반도 통일과 새로운 기회 p.46</p>		<p>커피브레이크</p>
11	<p>휴식</p>		<p>전체회의 V 다이아몬드 홀 동양철학과 기업가 정신 그리고 지도자의 자선활동 p.47</p>				<p>산업보안 정책의 오늘과 내일 에머랄드 홀 p.50</p>			
10	<p>휴식</p>						<p>휴식</p>		<p>휴식</p>	
11	<p>경영디자인 크리스탈 홀 A 디자인경영의 교육에 대한 대학 리더들의 토론 p.68</p>						<p>외교관라운데이블 그린드블룸 한반도 통일과 새로운 기회 p.49</p>		<p>융합학문으로서의 경영학의 미래 에머랄드 홀 p.51</p>	
12	이동									
13	자유오찬 히노루, 이디, 섬오라									
14	<p>그린드블룸 제주의 미래비전 p.54</p>	<p>크리스탈 홀 A 북한의 권력계승과 개방개혁 전망 p.52</p>	<p>크리스탈 홀 B 세계무역, 통화전쟁, 자유무역협정, 보호무역주의인가, 자유무역주의인가? p.53</p>	<p>크리스탈 홀 C 평화연구의 최근 이슈와 과제 p.55</p>	<p>크리스탈 홀 D 여성, 창조성, 문화 She's Coming p.56</p>	<p>다이아몬드 홀 아시아 자동차 산업의 미래 디자인+신표준 p.57</p>	<p>에머랄드 홀 경영디자인 워크숍 I Collaboration p.69</p>			
15	커피브레이크									
16	<p>제주프로세스와 동북아 디자인보체제 구축 p.58</p>	<p>의료관광 I 국내의 의료 관련정책 및 성공사례 발표 및 토론 p.59</p>	<p>제주국제자유도시와 세계평화의 섬 구현 p.61</p>	<p>장수기업 p.62</p>	<p>소셜네트웍스 시대, 언론이 나아가야 할 방향 p.63</p>	<p>경영디자인 워크숍 II Mutual Learning p.70</p>				
17	커피브레이크									
17	<p>와신기자 라운데이블 2012년 아시아 태평양 지역 정치변동 예측 p.64</p>	<p>국제보호구역과 제주형 보전모델 p.65</p>	<p>의료관광 II 제주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패널토론 p.60</p>	<p>장수인의 비밀 p.66</p>	<p>경영디자인 워크숍 III Convergent Education p.71</p>					
18	휴식 및 이동									
18	<p>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주최 폐회만찬 그린드블룸 p.66</p>									
19	<p>p.66</p>									

별첨: 참가자 명단

세션	역할	성함	소속 및 직함
유엔과 보호책임	사회	최종무	유엔 거버넌스센터 원장
	발표	보리스 콘도흐	아시아평화안보센터 소장
	토론	조창범	한국유엔협회 부회장
	토론	크리스티안 바우레더	유엔난민고등판무관사무소 보호담당관
DMZ 평화 · 생태적 이용 · 보존을 위한 국제협력	사회	이춘호	코리아 DMZ 협의회 상임대표/DMZ 미래연합 상임대표
	주제발표	김귀곤	코리아 DMZ 협의회 상임대표/서울대학교 명예교수
	발표	문성목	코리아 DMZ 협의회 남북분과위원장
	발표	손기웅	코리아 DMZ 협의회 사무처장
	발표	이재승	코리아 DMZ 협의회 국제분과위원장
경제발전에 따른 국격에 맞는 선진원조 동향	주제발표	백권호	영남대학교 사회교육원장/중국연구센터 소장
	주제발표	안충영	중앙대학교 국제대학원 석좌교수/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
유엔글로벌콤팩트와 5W 프로젝트를 통한 새천년개발목표(MDGs)에 기여 I	좌장	주철기	유엔글로벌콤팩트한국협회 사무총장/전 주프랑스대사
	주제발표	김기석	서울대학교 교수
	주제발표	김 전	서울대학교 교수
유엔글로벌콤팩트와 5W 프로젝트를 통한 새천년개발목표(MDGs)에 기여 I	주제발표	윤여창	서울대학교 교수
	주제발표	이도원	서울대학교 교수
	주제발표	이호영	서울대학교 교수
	주제발표	한무영	서울대학교 교수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 지진 및 쓰나미 위험	사회	신호상	서울과학종합대학원 입학 · 학생처장
	주제발표	김재관	서울대학교 지구환경시스템공학부 교수
두만강 개발계획과 동아시아 평화	사회	이수훈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장/전 동북아시아대위원장
	발표	공계유	상하이 국제학연구소 부소장
	발표	제임스 미으닉	노스텍사스대학 툴루즈대학원 원장
	발표	주수	두만강개발사무국 담당관
	발표	타가 히데요시	와세다대학교 사회과학대학원 원장
	발표	홍면기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아시아 문화 퓨전과 공동체 건설	사회	홍기원	숙명여자대학교 조교수
	발표	고정민	홍익대학교 교수
	발표	리우칭	중국국제문제연구소 미국연구소 소장
	발표	박인택	(주)TOUCHSKY 대표이사
	발표	정한용	엔터코리아 컴퍼니 대표이사
	발표	한경아	소앤아츠 대표이사/건국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겸임교수
리딩 브랜드로의 도약: 국가/지역브랜드 현황과 미래	주제발표	김윤정	탐라대학교 교수
	주제발표	이남식	전주대학교 총장/국가브랜드위원회 위원
거세어지는 기후변화와 강력해지는 재난, 대응책은 있는가	사회	허정옥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교수
	주제발표	박연수	소방방재청 청장
	토론	강은희	IT 여성기업인협회 회장
	토론	박재범	서울신문 주필
	토론	이래나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토론	정상만	국립방재연구소 소장
세계자연유산과 지질환경보존	사회	유재건	한국 유네스코협회연맹 회장
	발표	기 마티니	세계지질공원 운영위원
	발표	김희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발표	이브라힘 코무	아시아 · 태평양 지질공원망 APGGN 공동의장
	발표	이용일	대한지질학회 회장

세션	역할	성함	소속 및 직함
중국 기업의 한국 상장 (上場)	발표	고낙섭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부대표
	발표	송해성	삼성증권(주) 이사
	발표	최광호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발표	추원식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한국기업의 지속경영	사회	김재은	(사)산업정책연구원 원장
	주제발표	박태진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 원장
	주제발표	송명식	유한킴벌리 부사장
	주제발표	이채욱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저개발국 감염성질병퇴치를 위한 국제협력	좌장	박상대	국제백신연구소 한국후원회 이사장
	주제발표	방연호	교육과학기술부 글로벌정책담당관실 과장
	주제발표	앤서니 플린	국제백신연구소 사무총장
	주제발표	존 클레멘스	국제백신연구소 자원개발담당 사무차장
	발표	조동성	서울대학교 교수/국제백신연구소 한국후원회 회장
	발표	조완규	국제백신연구소 한국후원회 상임고문
[전체회의 I] New Asia Standard	좌장	강효상	조선일보 보도본부장
	기조연설	러본푸	중국과학원 관리학원 상임 부원장
	기조연설	리웨이안	동북재경대학교 총장
	기조연설	상빙	장강상학원 총장
	기조연설	윤은기	중앙공무원교육원 원장
	기조연설	장이청	세계화상협회 총회장
한·중 예술 관광	좌장	최석호	서울과학종합대학원 레저경영대학원 원장
	발표	김경훈	(주)에감 대표
	발표	김기덕	ToCorea 대표/서울과학종합대학원 한류예술경영 MBA 학생
	발표	김기술	서울과학종합대학원 레저경영 MBA 학생
	발표	김종석	서울과학종합대학원 한류예술경영 MBA 학생
	발표	박미랑	알래스카 관광청 대리/서울과학종합대학원 레저경영 MBA 학생
	발표	박정열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교수
	발표	백민서	서울과학종합대학원 레저경영 MBA 학생
[전체회의II] 세계지도자세션 새로운 아시아: 평화와 번영을 위하여	사회	박진	국회의원/전 외교통상통일위원장
	발표	글로리아 아로요	전 필리핀 대통령
	발표	한승수	전 대한민국 국무총리
[전체회의III] G20 시대, 금융시장 체제 변화와 뉴아시아 전망	좌장	조동성	서울대학교 교수
	기조연설	버지니아 캄스키	미국 캄스키 경영자문회사 대표
	기조연설	션닝	JP 모건 아태지역 연구부 사장
	기조연설	진수형	한국거리소 부이사장
	기조연설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경제정책위원회 위원장
[개회식] 기조연설	개회사	우근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포럼 조직위원장
	환영사	공로명	동아시아재단 이사장
	기조연설	김황식	대한민국 국무총리
	기조연설	자오지칭	인민정치협상회의 외사위원회 주임
	기조연설	글로리아 아로요	전 필리핀 대통령
중국의 부상: 기회와 도전	사회	나안 찬다	예일대학교 세계화연구예일센터 소장
	발표	모하메드 자와르 하산	말레이시아 전략국제문제연구원 회장
	발표	신정승	외교안보연구원 중국연구소 소장/ 전 주중국대사
	발표	옌쉐통	칭화대학교 국제연구소 소장
	발표	존 아이켄베리	프린스턴대학교 정치학 교수
	발표	후나바시 요이치	전 아사히신문 주필

별첨: 참가자 명단

세션	역할	성함	소속 및 직함
G20 과정의 금융규제개혁과 안전망	사회	박영철	고려대학교 국제학부 석좌교수
	발표	마이클 헬백	한국스탠다드차타드금융지주/SC 제일은행 부행장
	발표	요시노 나오유키	게이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발표	윌리엄 오버홀트	하버드 케니디행정대학원 선임연구원
	발표	이장영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
	발표	홍기택	중앙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지식 재산 시대, 여성의 중요성	좌장	한미영	(사)한국여성발명협회 회장/한국여성단체연합 수석대표
	발표	문승자	케이제이알텍(주) 대표
	발표	유은하	KBS 라디오 PD
	발표	윤명희	(주)한국라이스텍 대표
	발표	이인실	청운 국제특허법인 대표 변리사
	발표	정정례	(주)해누리 대표
비즈니스 신세력: 아시아 청년 리더	발표	조은경	다손식품연구소 대표
	좌장	최은수	매일경제 편집국 부장
	발표	리우저우웨이	21 세기 경제보도 사장
	발표	부리카이	남호국제여행사 사장
	발표	신용진	(주)뷰세 대표
	발표	유길상	BCE 원격평생교육원 대표
	발표	이경수	굿지앤 대표
	발표	장여우량	북경건강촉진협회 부사무총장
G20 이후 도시경영의 새로운 도전	발표	추광엽	비타민하우스 상무
	발표	판준중	중청실업 사장/청뤄(Qing Lv)그룹 회장
	좌장	신철호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주제발표	김창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경영기획본부장
	주제발표	명천	천진에코시티 개발회사 사장
	주제발표	메이더원	북경환경거래소 사장
	주제발표	이명노	새만금군사경제자유구역청 청장
Green Mega Trends in Business and World	주제발표	토마스 찬	홍콩이공대학 공공정책연구소 소장
	사회	이상호	경성대학교 교수
	발표(불참)	구자원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교무처장
	발표	김성우	삼정 KPMG 지속가능경영본부 본부장
	발표	김용언	한국전력공사 해외사업운영본부 책임전문위원
	발표	서영태	퀀테사인베스트먼트 대표이사
	발표	윤인모	닥터서비스 대표
동아시아 비핵화는 가능한가? 그 기회와 제약	발표	한석희	린디자인아시아 대표
	사회	피터 헤이즈	나우틸러스 안보지속가능성연구소 소장
	발표	가렛 에반스	호주국립대학교 총장
	발표	김봉현	외교통상부 다자외교조정관
	발표	아베 노부야수	일본국제문제연구소 군축·비확산촉진센터 소장
	발표	최 강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동아시아 교육협력 네트워크 강화	발표	판젠창	중국국방대학교 전략연구소 교수
	사회	문우식	서울대학교 교수
	발표	시에 타오	북경외국어대학교 교수
	발표	존 던컨	UCLA 대학교 한국학센터 소장
	발표	최현선	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학사업부 부장
전자상거래의 WEB 3.0 전망, 온라인 게임	발표	크리스틴 리	와세다대학교 교수
	좌장	이학영	한국경제 편집부국장
	발표	린동량	IDG 그룹 중국 창시자
	발표	민용재	YJM 인베스트먼트 대표

세션	역할	성함	소속 및 직함
전자상거래의 WEB 3.0 전망, 온라인 게임	발표	왕슈팅	DH gate.com 사장
G20 이후 국가와 도시경쟁력의 새로운 이슈	좌장	박영균	동아일보 국장
	발표	김원태	중앙공무원교육원 교수
	발표	문영훈	행정안전부 지방경쟁력지원과 과장
	발표	야오왕	보아오아시아포럼 집행위원장/보아오아시아연구원 상임부위원장
	발표	황요유이	중국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위원
	발표	황주홍	전라남도 강진군 군수
G20 이후 다국적 기업의 세계성공전략	좌장	정찬배	YTN 차장
	발표	김종성	보스톤대학교 교수
	발표	김태영	(주)필립스전자 대표이사
	발표	란타 헤이키	카고텍코리아(주) 대표이사
	발표	로흐민 다후리	Bogar Agricultural 대학교 교수/전 인도네시아 해양수산부 장관
	발표	박경미	에이온휴잇 대표이사
	발표	상빙	장강상학원 총장
	발표	저우웨이민	중야 해외 회장
	발표	천진야	알코아 아시아 · 태평양지역본부 회장
한국 기업의 중국 상장 (上場)	발표	후지모토 다카히로	동경대학교 교수
	좌장	강정호	서울과학종합대학원 지속가능경영원 원장/전 한국거래소 이사장
	발표	김현영	대우증권 캐피탈마켓 본부장/상무
	발표	임병익	투자금융협회 박사
동아시아 해양안보	발표	전병서	경희대학교 교수
	사회	후나바시 요이치	전 아사히신문 주필
	발표	리 하웰	세계경제포럼 글로벌행사센터 소장
	발표	백진현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원장/국제해양법재판소 재판관
	발표	사투 리마예	워싱턴 이스트 · 웨스트 센터 소장
	발표	엔셰통	칭화대학교 국제연구소 소장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미래와 고등교육의 역할	발표	존 아이켄베리	프린스턴대학교 정치학 교수
	공동사회	허향진	제주대학교 총장
	공동사회	문정인	연세대학교 교수
	발표	가렛 에반스	호주국립대학교 총장
	발표	고충석	전 제주대학교 총장
	발표	리웨이안	동북재경대학교 총장
역사화해와 동아시아 협력	발표	세이케 아쭈시	게이오대학교 총장
	발표	톤누티 닌	베트남 트라이비에트대학교 총장
	사회	정재정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발표	신정승	외교안보연구원 중국연구소 소장/ 전 주중국대사
	발표	스벤 살리	일본상지대학교 교수
Creative Industry: 아시아의 美(영화, 언론, 패션)	발표	옹깁용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정책연구소 이사
	발표	피터 더즈	스토포드대학교 명예교수
	좌장	김동호	부산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
	발표	리청	북경대학교 자원미술학원 고급문화예술연구센터 학과장
	발표	바이창	3D 차이나 총재
	발표	성필문	(주)스테레오픽처스 회장
	발표	위동	북경보나영화유한그룹 회장
중국! 14억 시장으로 달려가자	발표	이성래	한국예술원(KAI) 겸임교수
	발표	홍지아	경희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
	사회	강미은	숙명여자대학교 언론정보학부 교수
	발표	김해선	(주)썬트랜스글로벌 CEO
	발표	양즈저	천진경제개발구투자촉진국 국장

별첨: 참가자 명단

세션	역할	성함	소속 및 직함
중국! 14억 시장으로 달려가자	발표	이선림	(주)디오홀딩스 대표이사
	발표	조태관	(주)새미르 종합 건설 대표이사
	발표	허동연	천진시 에코시티투자개발회사 회장
아시아의 가치와 글로벌 리더십	좌장	김기용	카길 한국대표 회장
	발표	김성희	한국리더십연구소 소장
	발표	김영기	LG 전자(주) 부사장
	발표	민복기	EXR 코리아(주) 대표
	발표	이보균	(주)카길애그리퓨리나 대표이사 사장
	발표	채은미	페덱스 코리아 대표
그린에너지 응용기술과 신사업기회	좌장	현오석	한국개발연구원 원장
	발표	린동량	IDG 그룹 중국 창시자
	발표	문승일	서울대학교 교수
	발표	이 철	경일대학교 교수
	발표	최 열	환경재단 대표
	발표	허즈이핑	아시아문화포럼 주석/중화에너지재단 부주석
[전체회의IV] 기초연설 한·중 협력	좌장	한대규	제주평화연구원장/제주포럼 집행위원장
	기초연설	김도연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
	기초연설	양수길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
	기초연설	이희범	STX 에너지 회장/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기초연설	자오샤오강	중국남차그룹 회장
[전체회의V] 동양철학과 기업가 정신 그리고 지도자의 자선활동	사회	이의철	아시아경제신문 정치경제부 부국장
	발표	양원찬	김만덕 기념사업회 공동대표
	발표	김영호	사회책임투자 포럼 이사장/유한대학 총장
	발표	마가렛 리우	국제백신연구소 부이사장
	발표	스이안다	소림사 감독관리원
	발표	이정우	서울과학종합대학원 윤리경영연구소 소장
[전체회의VI] 한반도 통일과 새로운 기회	사회	곽승준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
	주제발표	이 근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발표	마크 민턴	코리아 소사이어티 회장
	발표	발터 클리츠	프리드리히 나우만재단 소장
	발표	수창허	상해외국어대학교 국제관계대학 학장
	발표	에브게니 아파나시예프	러시아 외교부 인사국장
[외교관라운드테이블] 한반도 통일과 새로운 기회	발표	오코노기 마사오	게이오대학교 법정대학 명예교수
	사회	곽승준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
	발표	마크 토클라	주한 미국부대사
	발표	이준규	외교안보연구원장
	발표	콘스탄틴 브누코프	주한 러시아대사
산업보안 정책의 오늘과 내일	발표	토마스 코즐로프스키	주한 EU 대사
	좌장	정진홍	서울과학종합대학원 산업정보대학원장
	발표	성선제	고려대학교 초빙교수
	발표	양승원	법무법인 소명 변호사
융합학문으로서의 경영학의 미래	발표	이길규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교수
	사회	신호상	서울과학종합대학원 입학·학생처장
	발표	고영희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경영사례연구센터장
	발표	송세진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교수
	발표	이현주	서울과학종합대학원 도서관장
	토론	김신효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기획협력처장
	토론	박정열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교수
토론	신종화	서울과학종합대학원 여가학연구소장	

세션	역할	성함	소속 및 직함
융합학문으로서의 경영학의 미래	토론	차경천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교수
제주의 미래비전	사회	이태식	STX 에너지 고문/전 주미국대사
	발표	권병현	전 주중대사
	발표	모리스 스트롱	북경대학교 명예교수/전 유엔사무차장
	발표	버지니아 캄스키	미국 캄스키 경영자문회사 대표
	발표	스펜서 김	미국 CBOL 그룹 회장
	발표	알란 팀블릭	서울특별시 서울글로벌센터 소장
	발표	우근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포럼 조직위원장
	발표	유종하	대한적십자사 총재
	발표	이상준	골든브릿지금융그룹회장
	발표	윌리엄 오버홀트	하버드 케니디행정대학원 선임연구원
북한의 권력계승과 개방개혁 전망	발표	장시엔원	중국 분마실업집단지산유한공사 회장
	사회	티 제이 펨펠	캘리포니아주립대학교 정치학 교수
	발표	오코노기 마사오	게이오대학교 법정대학 명예교수
	발표	조동호	이화여자대학교 북한학 교수
	발표	존 들러리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조교수
	발표	존 스웬슨 라이트	캠브리지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소장
세계무역, 통화전쟁, 자유무역협정: 보호무역주의인가, 자유무역주의인가?	발표	진징이	북경대학교 코리아연구소 교수
	사회	안충영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
	발표	라지브 쿠마르	인도상공회의소 소장
	발표	에이미 잭슨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소장
	발표	왕용	북경대학교 국제학대학 교수
평화연구의 최근 이슈와 과제	발표	정인교	인하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발표	최석영	외교통상부 FTA 교섭대표
	사회	정경원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소 교수
	발표	스캇 게이츠	오슬로국제평화연구소 연구교수
	발표	이상환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소 학술지 책임교수
여성, 창조성, 문화: She's Coming	발표	이성우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실장
	발표	정기웅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소 연구교수
	사회	김은실	서울국제여성영화제 부집행위원장
	주제발표	글로리아 스타이넵	미국의 페미니스트 저널리스트
	토론	구어옌원	미국아시아협회 사무총장/상해재경대학 EXPO 경제연구원 부원장
	토론	김홍희	전 경기도 미술관 관장
	토론	도성희	키위스톤 연구소장
	토론	이혜경	서울국제여성영화 집행위원장/여성문화예술기획 이사장
	토론	장필화	이화여자대학교 교수/아시아여성학회 회장
아시아 자동차 산업의 미래: 디자인+신표준	토론	정현경	뉴욕 유니온 신학대학원 교수/뉴욕 관음 선원 불교법사
	토론	조세린	배재대학교 아펜젤러국제학부 교수
	좌장	현영석	한남대학교 교수/코리아오토포럼 운영위원장
	사회	최우석	조선일보 차장
	발표	고상근	서울대학교 교수
	발표	김기찬	전 (사)한국자동차산업협회 회장/한국중소기업학회 회장
	발표	김종식	타타대우상용차(주) 대표이사
	발표	서승우	서울대학교 교수
	발표	순지연	AT 커니 글로벌 경영컨설팅(상해) 공동 출자자
	발표	쉬허이	북경자동차그룹 회장
	발표	양웅철	현대자동차(주) 사장
발표	전광민	연세대학교 교수	
발표	조동성	서울대학교 교수/코리아오토포럼(KAF) 회장	

별첨: 참가자 명단

세션	역할	성함	소속 및 직함
제주프로세스와 동북아 다자안보체제 구축	사회	문정인	연세대학교 교수
	발표	시모니아 노다리	모스크바국립국제관계대학교 교수/전 IMEMO 소장
	발표	박철희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발표	윤병세	서강대 국제대학원 초빙교수/전 대통령 통일외교안보정책수석
	발표	찰스 모리슨	하와이 이스트-웨스트 센터 회장
	발표	판젠창	중국국방대학교 전략연구소 교수
[의료관광 I] 국내외 의료관련정책 및 성공사례 발표 및 토론	사회	표정호	순천향대학교 교수
	주제발표	라울 칸데르왈	아폴로병원 운영관리자
	주제발표	이 철	연세의료원 원장
	주제발표	프렘 쿠마 나이어	레플츠병원 부원장
	토론	강창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토론	김민정	딜로이트 컨설팅 이사
	토론	윤인모	유니메디성형외과 대표원장
	토론	이기효	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토론	조현준	현대메디스 이사
	토론	진수남	한국관광공사 의료관광 사업단장
[의료관광 II] 제주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패널토론	사회	김철중	조선일보 기자
	주제발표	이동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의료사업 처장
	토론	김상훈	제주한라병원 대외협력처장
	토론	김형진	KPMG 상무
	토론	박영수	제주관광공사 사장
	토론	이상준	아름다운 나라 피부과 원장
	토론	이선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토론	이왕준	병원협회 정책이사/명지병원 이사장
	토론	인요한	연세 세브란스병원 국제진료센터장
	토론	최 건	서울우리들병원 원장
제주국제자유도시와 세계평화의 섬 구현	사회	고성준	제주국제협의회 회장/제주대학교 교수
	토론	강승화	제주특별자치도 국제자유도시본부장
	토론	고승한	제주발전연구원 연구실장
	토론	김부찬	전 대한국제법학회장/제주대학교 교수
	토론	김성준	제주지방자치학회장/제주대학교 교수
	토론	김창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경영기획본부장
	토론	양길현	제주대학교 교수회장
	토론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운영위원장
	토론	유지은	제주특별자치도 국제관계자문대사
	토론	장성수	제주특별광역경제권 MICE 인재양성센터장/제주대학교 교수
	토론	정대연	전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 한국정부대표/제주대학교 교수
	토론	좌승희	경기개발연구원 이사장
	토론	허정옥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교수
	장수기업	좌장	조동성
사회		안세연	서울대학교 박사
발표		박영원	동경대학교 교수
발표		비스와나튼 기리쉬	카톨릭대학교 교수
발표		송창석	승실대학교 교수
발표		이종욱	서울여자대학교 교수/한국경제학회 편집위원장
발표		현승탁	(주)한라산대표/제주상공회의소 회장
토론		김기찬	가톨릭대학교 교수/한국중소기업학회장
토론		양오석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상학부 연구교수

세션	역할	성함	소속 및 직함
장수기업	토론	이경목	서울대학교 교수
	토론	이윤철	한국항공대학교 교수
소셜네트웍스 시대, 언론이 나아가야 할 방향	사회	홍지아	경희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
	발표	김 진	중앙일보 논설위원
	발표	김찬호	한국방송공사(KBS) 프로듀서
	발표	리우저우웨이	21 세기 경제보도 사장
	발표	샘 제임슨	일본 외신기자협회 회장
	발표	왕잉	중국 중앙방송국(CCTV) 애니메이션유한회사 사장
	발표	이성현	코리아 타임스 베이징 특파원
	발표	천팅	타임메이미디어 공동 출자자/대표
	발표	최우석	조선일보 차장
	[외신기자라운드테이블] 2012년 아시아 태평양 지역 정치변동 예측	사회	김영희
발표		마틴 팩클러	뉴욕타임즈 아시아특파원
발표		아르템 산지에프	로씨스까야 가제타 한국특파원
발표		세바스티엔 팔레리	르 피가로 한국특파원
발표		수미다 타쿠시	교도통신 한국특파원
발표		이병중	전 뉴스위크 한국특파원
국제보호구역과 제주형 보전모델	사회	최정일	유네스코 MAB 국제조정이사회 의장
	발표	이병욱	세종대학교 교수/전 환경부차관
	발표	이상돈	이화여자대학교 교수/한국습지학회 회장
	발표	윤용택	제주대학교 교수회장
	발표	조도순	카톨릭대학교 교수
장수인의 비밀	좌장	양영오	제주발전연구원 원장
	주제발표	박상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발표	고승한	제주발전연구원 연구실장
	발표	박주희	제주특별자치도의원 의원
[경영디자인] 기초연설	기초연설	Richard Buchanan	Case Western Reserve University
[경영디자인] 유럽·아메리카·아시아 경영의 흐름, 제주의 도시디자인	주제발표	조동성	서울대학교 교수
	주제발표	Lee Green	Vice President of Brand Experience and Strategic Design, USA
	주제발표	Justus Theinert	Professor, University of Applied Sciences Darmstadt, Germany
[경영디자인] 디자인경영의 교육에 대한 대학리더들의 토론	주제발표	이남식	전주대학교 총장/국가브랜드위원회 위원
	주제발표	Jurgen Faust	CAO IED, Milan, Prof. MHMK Munich, Germany
	주제발표	Moshe Porat	Dean, Fox School of Business, USA
	주제발표	Seiichiro Yonekura	Director, Institute of Innovation Research, Japan
[경영디자인] Collaboration	발표	정경원	서울시 문화관광디자인 본부장/카이스트 산업 디자인학과 교수
	발표	Jamer Hunt	Parsons the New School of Design, USA
	발표	Jennifer Whyte	University of Reading, UK
	발표	Marc Stickdorn	Management Center Innsbruck, Austria
	발표	Miso Kim	Carnegie Mellon University, USA
	발표	Seungene Ryang	IDEO, Tokyo Office, Japan
	발표	Youngjin Yoo	Professor, Fox School of Business TempleUniversity, USA
[경영디자인] Mutual Learning	발표	김태영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발표	권유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
	발표	전수진	연세대학교 교수
	발표	Lars Rademacher	The Macromedia University for Media & Communication
	발표	MB Sarkar	Fox School of Business, Temple University, USA
	발표	Nicholas Berente	University of Georgia, USA
	발표	Xin Xiang	Hong Kong Politechnique University, China

별첨: 참가자 명단

세션	역할	성함	소속 및 직함
[경영디자인] Convergent Education	발표	김원택	홍익대학교 국제디자인전문대학원 교수
	발표	신수진	연세대학교 교수
	발표	Brigitte Borja de MOZOTA	Ecole Parsons a Paris, Universite Paris Ouest, France
	발표	Erin Cho	Parsons the New School of Design, USA
	발표	Kaja Tooming Buchanan	Cleveland Institute of Art, USA
	발표	Kipum Lee	Case Western Reserve University, USA
	발표	Sooshin Choi	University of Cincinnati, USA

제주포럼 사무국

697-120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227-24, 제주평화연구원

Tel. 064-735-6500 / Fax. 064-735-6512 / jejuforum@jpi.or.kr / www.jejuforum.or.kr